

금수강산

3

주체109(2020)
루계 제367호 월간

 ISSN 1727—9062

금강산을 찾아서

감정 풍부히 (안땅장단)

작사 리호남, 작곡 김홍린



2. 에에 에헤여 선경이로구나
천만길 떨어져 옥으로 흐르네
안개 낀 구룡연에 무지개다리
팔담에 선녀가 내린다오
(후렴)



백두산정에로의 행군길

세차게 굽이치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열풍속에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붉은기를 휘날리며 백두산정에로의 행군길에 올랐다.

조국의 도도한 기상인양 만년장설을 떠이고 장엄히 솟아있는 백두산정을 향해 내달리며 터치는 행군대원들의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의 산발들에 메아리친다.

본사기자 김평

차 례

굽이치는 백두산답사열풍 · · · · · · · · · · · · · · · 3

유전의학의 먼길을 헤쳐 · · · · · · · · · · · · · · · 7

《애국자할머니》 · · · · · · · · · · · · · · · 8

혁신창조의 비결 · · · · · · · · · · · · · · 10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 · · · · · · · · · · · 12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 14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당 · 16

일 화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 17

그이의 미소 · 18

제품의 질을 담보해간다 · 19

대상설비생산자들 · 20

더 많은 돌가공품들을 · 22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 · · · · · · · · · 24

력사인물

개화사상의 선각자 박규수 · · · · · · · · · · · 24

한시도 마음을 놓아선 안될 방역사업 · · · · · · · 26

시대가 부르는 사람 · · · · · · · · · · ·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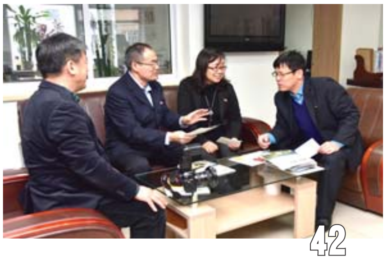
22

지능계발교육방법들을 창조하여 · 30

인기를 획득한 《천년》화장품들 · 32

기대되는 꼬마작곡가 · 34

따뜻한 정 · 36



목표는 첨단돌파 · · · · · · · · · · · · · · · · 37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 · · · · · · · · · · 39

조국의 품에 안겨

평양에서 다시 만난 서기장 · · · · · · · · · 40

동포들이 기다리는 친근한 길동무로 · · · · · · · 42

애국의 한길에서 · 44

옛 실학자의 《대두론》을 되새겨보며 · · · · · · · · · · · · · · · · · · 45

민족문화유산 고구려무덤벽화 (1) · 46

남포시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7) · 47



민족의 향기

관심을 끄는 온천문화 · · · · · · · · · · · · · · 48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5) · · · · · · · · · · · · · 49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5) · · · · · · · · · · · 50

야 화

콩밥먹은 힘 · 52

사 화

연안성에서의 맹세 (3) · 53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 · · · · · · · · · · · · · · · · · 54

고조되는 적폐청산의 함성 · 55

요람에 돌을 던지는 망동 · 56

상 식

민족의 유산 고려자기 · 32

더운물에 발 담그기 · 34

잉어장식품 · 35

조선속담 (겸손한 품성) · 41

유모아

눈보고 병진단 · 45

편집: 박철만



끓어치는 백두산답사열풍

최근 조국에서 《백두산대학》으로 향한 지망자들과 입학생들이 대폭 늘어나고있는것은 물론 그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백두산대학》이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의미한다.

조국인민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백두산에는 많은 혁명전적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만리 생눈길을 헤치시며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투쟁사가 깃들어있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면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안고 조국을 지켜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가를 굳히게 된다. 그리고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신념, 절해고도에서도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배우게 된다.

조국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는 비단 어제오늘에 생겨난것이 아니다.

추억을 거슬러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6월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시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발기하시고 그 길을 개척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발자취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새겨졌다.

답사에서 기본은 꽃피는 봄날보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눈보라 세찬 겨울에 하는 답사이다. 살을 에이는듯 한 백두의 강추위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게 되고 그 추위가 얼마큼 혁명열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를 체험하는 겨울철답사를 진행할 때 누구나 《백두산대학》의 졸업생이 될수 있는것이다.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이 《대학》의 졸업생이 될것을 열렬히 희망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저저마다 실천에 옮기고있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백두대지는 혁명전통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의 재보들로 가득찬 대로천혁명박물관과 같다고 하시면서 백두대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강국념원이 푸르싱싱 살아 생생히 깃들어있는것 같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깃들어있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난해말에만도 전국당선전일군들과 전국청년학생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부르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답사대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고 소백수골에 자리잡은 사령부귀틀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책원지로 정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온몸으로 체득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감동속에 돌아보았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중요출판물보급기지였던 사자봉밀영의 사령부귀틀집과 대원실자리, 우등불자리 등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백두산정에 올라 백두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이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며 《만세!》합성을 터치였다.

답사자들은 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혁명가요도 부르면서 행군하였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눈길을 헤쳐갔다.

답사의 나날은 비록 짧지만 답사자들은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행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백두산대학》이야말로 사람들의 신념을 벼려주는 혁명교정이라고 이야기하고있다.

조선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대렬은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조선중앙통신



유전의학의 먼길을 헤쳐



조신옥

주체107(2018)년 8월 인디아에서 진행된 《선천성이상에 의한 갓난아이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지역국회의》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 한 녀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조신옥이다.

그는 류창한 영어로 조국에서 전국적인 예방대책을 세워 갓난아이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가 토론을 마치자 많은 외국인들은 그의 손목을 잡고 정말 훌륭한 토론을 했다고, 선생의 토론을 통해 조선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조신옥박사는 그들의 찬사를 들으며 자기가 걸어온 유전의학의 먼길을 추억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전의학연구소에 배치받아 듀센형근위축증의 조기진단과 보인자검출에 대한 연구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은 그날부터 이 길을 후회없이 걸어왔다.

품이 많이 들고 결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연구사업이였지만 그는 유전의학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온넋을 다 바쳤다.

그는 수백밤을 지새우며 수많은 문헌자료를 수집하였고 끝없는 사색과 탐구로 유전병에 대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확립하였다.

그 나날 마음이 흔들린적도 있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그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연구냐? 아니면 가정이냐? 하는 두 갈림길에서 그는 쉽게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다. 연구에서 이렇다할 전진이 없는것으로 하여 자기가 가는 길이 아득하게만 생각되였다.

조신옥박사가 모대길 때 남편은 함께 고난을 헤쳐가자며 그가 선택한 유전의학의 그 길로 주저없이 곧바로 가도록 떠밀어주었다.

남편의 믿음과 방조속에 그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성질병들을 찾아내고 진단, 치료방법을 확증하였다.

한번은 그가 태여나 4개월이 된 어린이에 대한 구급협의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몸무게가 3 800g에 손발에 온기가 없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데다가 영양실조 3도…

생리적황달이 계속되고 몸무게증가가 전혀 없는 갓난아이를 관찰할수록 그의 사색은 한곬으로 집중되였다.

분명 문헌상으로만 알려져있는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이였다.

그는 여러 병원의 전문가들과 련계하여 갑상선호르몬과 자극호르몬을 측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또 하나의 유전성증후군을 발견한 그는 시급히 치료대책을 세워나갔다. 정성으로 이어진 날과 달들이 흘러 마침내 환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세웠다.

이외에도 그는 《선천성이상》, 《유전성증후군》, 《유전성대사질병》, 《분자유전학》 등의 많은 도서들을 집필하였으며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과학기술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수많은 발명권,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그의 딸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유전의학의 길에 나섰고 석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는 오늘도 의학과학연구에 전심전력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한다.





《애국자할머니》로 만사람의 축복을 받고있는 서재렬할머니(가운데)

《애국자할머니》

인생길은 여러 갈래이다.

누구는 물질적부를 위한 삶의 길을 경주하고있을 때 누구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삶을 살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그 여러 갈래의 인생길에서도 자기의 안락과 명예보다 먼저 애국의 길에 묵묵히 자기의 심신을 바쳐가고있는 한 공민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이름은 서재렬, 나이는 올해 80살.

어느모로 보나 특별한 점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체소하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이 로인을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할머니》라고 존경하여 부르고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에서 살고있는 서재렬로인은 얼마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수목원에 자기가 몇해동안 직접 심어 자래운 수종이 좋은 18그루의 꽃과 나무를 정히 옮겨 심었다.

지난 근 20년간 서재렬로인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거리와 마을들에 자기의 손으로 수많은 꽃과 나무들을 심고 키워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날, 일요일 가림없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꽃과 나무에 묻혀살다싶이 하는 그에게 《새벽문을 여는 녀인》이라는 별호도 생기였다.

그는 때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지고 먼길을 홀로 걸었고 어떤 때에는 10t이 넘는 자갈을 들춰내여 부식토를 깔고 나무모들에 정성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꽃을 딸로, 나무를 아들로 여긴 그는 어머니가 시간을 맞추어 애기에게 젖을 먹이듯 꽃과 나무들에 자양분을 주었다. 소나무, 목란, 황목련, 향나무 등 그가 자래운것만도 수천그루를 헤아린다.

우리는 만경대구역에서 살고있는 오영순(64살)녀성의 이야기를 통해 서재렬로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서재렬로인은 전후 군사복무를 한 로병이다. 당시 그는 군사훈련중 치명상을 입은 한 군인의 수술에 참가하였다가 그 군인이 하반신불구, 앞으로 후대를 남길수 없는 몸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서재렬은 제대되여 자기 집으로가 아니라 특류영예군인이 된 그 군인을 찾아가 일생을 같이할것을 약속하고 그의 손과 발이 되여주고 정신적지주가 되여주었다.

남달리 문학을 사랑한 그들부부는 황북일보사, 황해북도방송위원회에서 기자로 있던 시기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건설장들에서 적극적인 취재활동과 선동연설로 많은 사람들을 고무해주었다.

그 나날 서재렬은 많은 기관, 단위들의 명예관리원, 명예종업원으로 등록되였으며 그에게는 지원증서, 원군증서들이 끝없이 늘어났다.

그것은 서재렬에게 있어서 억만장자들도 맛볼수 없는 최대의 기쁨이였고 삶의 락이였다.

남편은 안해 서재렬의 사심없는 방조속에 중편소설 《불화살》을 비롯하여 100여편의 시, 소설을 창작하여 지면에 련속 발표하였고 수많은 작가후비들도 키워냈다.

서재렬의 정성에 의해 4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특류영예군인 남편이 20여년이나 더 생을 연장하였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남편의 몫까지 합쳐 스스로 거리와 마을들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1 000여t의 파철을 수집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남모르게 걸어가는 그 길에서 서재렬을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애국심에 감동되여 절로 따라섰고 오영순녀성을 비롯한 친자식이 아닌 딸, 아들, 손자, 손녀들이 130여명이나 생겨 한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속에는 당일군,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다 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서재렬로인과 같은 애국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후대들이 꿋꿋이 이어나가는것은 우리 사회의 풍조라고 말한다.

60여년세월 녀성으로서 응당 가질수도 누릴수도 있었을 모성애, 가정의 단란함과 같은 행복을 오로지 특류영예군인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쳐온 서재렬.

그 어떤 명예도 평가도 바람이 없이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는 그와 같은 애국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은 그렇듯 화목하고 강한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오늘도 그는 이 땅에 진심을 묻어가고있다.



혁신창조의 비결



희천제사공장에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해온 공장의 종업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련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비결은 공장에서 지난 기간 설비현대화와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대중의 생산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데 있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중시를 발전과 생산장성의 열쇠로 간주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여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리고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공장에 구축된 통합생산체계도 그렇게 되여 완성된것이다.

이 통합생산체계는 공장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항목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효률적인것으로 하여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자동실포장기와 플라즈마절단기는 물론 걸면제거기의 기술개조와 계면활성제에 의한 고치삶기방법 등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도 역시 앞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한 배심과 지식, 경험에 토대하여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지혜를 합쳐 이룩한 창조물들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기료품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았으며 명주실 t당 고치소비기준을 종전보다 현저히 낮춤으로써 생산장성을 이룩하였다.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높여준것 역시 혁신창조의 비결의 하나였다.

공장일군들은 작업반별, 기대별사회주의경쟁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의 열풍이 일도록 하여 누구나 혁신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하루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한 작업반이 늘어나게 되였으며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혁신자들도 배출되였다.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끊임없이 혁신을 창조해가는 공장의 발전이 기대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가슴벅차오르는 기쁨과 환희가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차넘치고있다.

형언하기 어려운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이 땅의 눈부신 래일을 예고하는 의의있는 사변들을 줄기차게 아로새겨온 지난해를 더듬어보는 인민의 마음은 커다란 자부와 긍지로 끓어번지고있다.

참으로 눈부신 승리들이였다. 땅을 박차고 솟아오른듯 짧은 기간에 너무도 놀라운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친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이 놀라운 창조물들의 완공을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인민은 포전길, 수천척 지하막장길, 날바다길, 하늘길 그리고 탐구의 길을 수없이 걸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구상하시고 펼치시는 길을 따라 당에서 중시하는 건설대상이 있다면 천여리 먼 곳에서도 그곳으로 마음이 쏠리고 정든 도시와 안온한 집을 떠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일군들부터가 당이 부르는 곳으로 앞장서 달려가 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였던 생활의 궤도를 벗어나 삼지연행, 양덕행, 원산행 렬차를 탔다. 12월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였을 때에는 온 나라가 그 자욱을 따를 한마음으로 불탔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들도 한가정의 행복보다 먼저 조국이라는 큰집을 위한 일을 스스로 맡아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걸음걸음생의 아름다운 자욱을 새겨가는 인민이기에 그들은 고난속에서도 한개 도시와도 맞먹을 문명의 별천지들을 련이어 일떠세웠고 지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는것이다.

조선이 더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라는 적대세력들의 궤변은 최근시기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였다.

그러나 지금 승리의 단상에는 누가 오르고있는가. 과연 무엇이 적대세력들의 그 궤변을 세인의 조소거리로 만들어버리고있는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에 가슴이 뜨거워온다고,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정은 하늘도 감복시킬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 우리 원수님의 그 믿음과 기대는 곧 힘이였다.

위인들과 명장들의 비상한 담력과 지략은 물론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력이나 경제력, 군사력에 의거한 무수한 승리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허나 조국인민은 그 모든것에 앞서 혼연일체의 힘, 단결력을 자부하고있다.

당이 명령하면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결사관철하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기대는 정녕 기적적승리의 원천으로 되였다.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세계를 놀래운 천만군민의 투쟁열, 혁명열의 무진장한 열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달사이에만도 여러 단위를 찾으시여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신분,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신분, 주저앉을번 하였던 단위가 몰라보게 변모된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시며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앞둔 시기 삼지연군건설에서의 승전포성은 우리 국가의 위력과 경제적잠재력의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고향집뜨락인 삼지연군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릴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불같은 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 인민은 충성의 구슬땀으로 삼지연시에 전변의 새 력사를 아름답게 새길수 있은것이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그이의 헌신은 그 한계가 없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우에 기적과 변혁의 함성이 높이 울리였으니 진정 그이의 헌신의 자욱은 그대로 온 나라에 전진과 비약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승리의 행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펴주신 그 불길은 자기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크나큰 믿음에 의해 타오른것이였다.

삼지연시건설에 참가한 한 건설자는 《사실 현존조건만을 따져놓고보면 2019년안으로 방대한 2단계건설을 결속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름아닌 우리를 믿고 삼지연시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는 그 하나의 생각, 믿음에는 반드시 보답으로 따라서야 한다는 그 하나의 자각만이 있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 땅에서 솟아난 놀라운 승리들이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가에 대한 체험자의 진실한 고백이였다.

만일 우리 인민이 곤난앞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면 오늘의 승리는 고사하고 존재조차 유지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남들과 같은 조건과 환경속에서 이룩된 승리라면 그토록 가슴뻐근한 자부에 넘쳐있지 않을것이다. 물질만능론만을 제창하는 적대세력들은 이것을 알리 없다.

그 누구도 흉내낼수도 모방조차 할수 없는 혼연일체, 날을 따라 천백배로 강해지는 이 백승의 진리가 있어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것을 세계는 또다시 보게 될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주의조선의 전진과정은 그 어떤 장애와 도전에 부닥친다해도 인민을 위해 끝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헌신과 로고,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있어 조국인민은 언제나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9.18사변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항일전쟁을 시급히 개시해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새로운 세계대전을 예고하는 부정의의 포성에 정의의 포성으로 대답할 절호의 기회가 닥쳐온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혁명가들은 모두 지하에서 나와 자기 진지를 차지하였다. 대륙을 뒤흔드는 포성에 만주지방사람들이 그해 가을 단단히 정신이 들었다고 할수 있다. 그 포성은 사람들을 위축시킨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시키고 분발시키였다. 적의 폭압으로 초토화되였던 만주지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투쟁기운이 태동하였다.

우리는 군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그 당시 만주지방사람들은 폭동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때문에 누구나 고민하였다. 혁명을 다음단계에로 상승시키자면 그들에게 신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격문이나 뿌리고 빈말공부나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해결할수 없었다.

실패에 습관된 군중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자면 새로운 투쟁에로 그들을 궐기시키고 그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지어야만 하였다. 오로지 승리한 투쟁만이 대중을 악몽과 같은 침체상태에서 건져낼수 있었다. 대중을 투쟁속에서 단련시키지 않고서는 설사 몇몇 선각자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한다고 하여도 크게 은을 낼수 없었다.

9.18사변의 발발은 동만지방인민들이 다시한번 투쟁에 일떠설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었다. 국내인민들의 폭동적진출이 또한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농민들의 소작쟁의와 반일폭동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었다. 고원동척농장 소작쟁의, 룡천불이농장 소작쟁의, 김제다목농장 소작쟁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룡천지구에서는 1929년 이후에도 농민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때 그곳 조직들이 우리와 련계를 가지고 투쟁을 잘하였다. 룡천땅에는 우리 공작원들이 많이 나가있었다.

영흥의 3 000여명 농민들과 삼척의 2 000여명 농민들은 9.18사변후 《비상시국》을 표방하며 파쑈적인 폭압과 략탈을 강화하고있는 일제를 반대하여 큰 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때 우리는 간도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조직하였다.

각지의 투쟁위원회는 자기 산하에 선전대, 규찰대를 두고 삐라와 격문을 찍어내며 투쟁구호를 제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빈틈없이 한 다음 혁명조직구별로 추수투쟁에 들어섰다. 초기의 투쟁은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투쟁이였다.

한때 어떤 력사가들은 이 투쟁에 《추수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였는데 나는 그런 명명을 적중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추수투쟁은 5.30폭동의 모방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였다. 이 투쟁은 리립삼의 좌경망동적인 사상여독을 완전히 청산한 기초우에서 새로운 전술적원칙에 의하여 전개한 승리한 대중투쟁이였다. 5.30폭동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주역을 놀았지만 추수투쟁에서는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키를 잡고 군중을 지휘하였다.

추수투쟁은 폭력을 기본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5.30폭동이 변전소와 교육기관에 불을 지르고 지주, 자산가일반을 타도하면서 방화와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면 추수투쟁참가자들은 소작료의 3,7제, 4,6제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린접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였다.

소작료를 낮추라는 요구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의 처지로 볼 때 결코 무리한것이 아니였다. 그 요구가 정당하기때문에 길림성정부도 소작료를 3,7～4,6제(지주 30～40%, 소작인 60～70%)로 한다는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다. 폭력이 발동된것은 투쟁위원회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나서는 악질지주들과 농민들의 투쟁을 총검으로 탄압하는 군경들에 한해서였다.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완고한 지주들에 대하여서는 량곡을 밭에서 3,7제나 4,6제의 비률로 소작인의 몫을 실어가거나 창고를 헤치고 나누어가졌다.

략탈적인 동척금융부와 고리대금업자들, 일제의 통치를 협조하는 조선인거류민회와 같은 반동단체들도 투쟁의 과녁이 되였다.

내가 연길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지도하고 안도로 돌아온 어느날이였다.

5.30폭동후 일제의 수사를 피해 숨어다니던 최동화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추수투쟁이 점점 폭력적인 성격을 띠여가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안도지구에서 5.30폭동을 선동한 장본인이고 또 후에는 그 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규정한 우리의 립장에 의견을 가지고 론쟁까지 하겠다고 하던 그가 돌변하여 폭력의 유해설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5.30폭동을 좌경맹동이라고 비난하던 동무네가 순수한 경제투쟁에 폭력을 끌어들이고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

최동화는 이런 질문을 하고나서 팔짱을 지르고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마 정통을 찔렀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흐뭇해하는것 같았다.

《선생님은 뭔가 오해하고계시는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5.30때 제창한 〈붉은 폭력〉과 우리가 추수투쟁에서 사용하고있는 폭력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닙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것이 례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것을 따져볼 사이도 없이 나는 그만 이렇게 되묻고말았다.

《물론 미세한 차이야 있겠지. 그러나 폭력이야 이렇든 저렇든 폭력이 아니겠소.》

《우리는 정당한 리유와 타당성이 있을 때에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례를 들어 지주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완력으로 쌀창고를 헤쳤습니다. 군경들이 사람들을 잡아갈 때면 실력행사로 동지들을 탈환하기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 놈들이 폭력을 휘둘러 투쟁을 탄압하고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합니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맑스주의의 일반적원리를 내가 몰라서 동무네를 시비하는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1대1로 완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는거요. 5.30폭동은 벌써 아득한 옛말로 되였소. 우리 혁명은 불행하게도 퇴조기에 들어섰소.》

《퇴조기라구요?》

《그렇소. 퇴조기요. 이보퇴각의 시대요. 쓰똘리삔반동기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암담하지 않았을거요. 관동군이 일거에 전 만주를 강점한것을 보지 못하오? 장학량의 30만 대군도 퇴각했소. 이런 때에는 혁명력량을 로출시키지 말구 보존해야 한단 말이요. 적을 서뿔리 건드리다가는 동만땅에서 경신년의 대〈토벌〉과 같은 참사가 재연될수 있소.》

최동화는 추수투쟁이 폭력투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고 무장을 드는것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무장투쟁구상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이고 사상루각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실 그와의 론쟁은 힘에 부친것이였다. 최동화란 사람이 원래 두뇌도 명석하고 공산주의의식도 높은 지식인이여서 웬만한 말은 이가 들지 않았다. 그는 말끝마다 고전의 명제들을 끌어내여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론증하군 하였는데 다 아퀴가 맞았다. 최동화를 납득시킨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의 주장은 결국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갔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는 일제의 대대적인 무장공세나 장학량군의 패주나 독립군의 와해와 같은 불리한 징후들은 보면서도 국내와 동만인민들의 폭동적진출은 전혀 보지 못하고있었다. 내앞에는 분명히 눈을 뜨고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있었다.

반혁명의 공세와 비겁한 무리들의 패주가 곧 혁명의 퇴조기로 될수는 없었다. 문제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동향에 달려있었다.

최동화는 전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인민대중의 힘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있었다.

그는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지 못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과소평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당

당의 절대적권위는 세련된 령도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로동당의 혁명방식, 투쟁방식은 굴함없는 공격전이다. 조선로동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작전과 지휘도 공격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모든 일을 자기의 신념과 결심대로 전개해나가는 강한 자주적대, 부닥치는 도전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성, 순간의 자만과 답보도 모르고 련속 공격하는 계속혁명정신 등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관통되여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드센 배짱과 담력으로 만난시련을 돌파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해 자립, 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나라의 주체적힘이 일층 강화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불과 몇년안에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하여 건국이래 가장 큰 산을 넘는 대승리를 거두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져 나라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공격방식이 어떤 기적을 낳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조선로동당의 투쟁방식은 과학성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자력갱생로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사상,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과학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혁신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으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주체조선의 속도도 창조되고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의거할 때 세상에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로동당은 전략적결단도 인민을 믿고 내리고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작전도 인민을 믿고 펼치였다. 전대미문의 고립과 압살책동속에서 삼지연시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진행한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믿음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최악의 시련속에서 최고의 목표를 내세우고 최대의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후대들을 위해서이다. 우리 대에 고생을 겪더라도 미래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놓아야 하며 그것도 완벽하게 하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결심이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펼친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는 길에도 새겨져있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에도 어리여있다. 무엇을 하나 설계하고 작전하여도 백년, 천년앞을 내다보며 개발창조형, 미래형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주체조선의 래일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과학이며 승리라는것은 실천투쟁속에서 뚜렷이 확증된 진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믿고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과학적인 령도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힘차게 써나갈것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 강철같은 조직력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그것을 한마음한뜻이 되여 결사관철해나가기에 조국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일 화◇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사연깊은 철사다리

주체108(2019)년 5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야강2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발전소운영실태를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를 바라보시며 그곳으로 올라가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조정지순회점검다리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철사다리를 띄여보시고 반색을 지으시며 저쪽으로 올라가자고 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 철사다리는 발전소근무성원들이 언제와 수문의 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이였는데 경사가 급하고 협소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로 오르시겠다니 일군들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군들이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그이께서는 벌써 철사다리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 위험합니다.》라고 간절히 아뢰였다.

철사다리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걱정을 눅잦혀주시려는듯 사다리를 몇번 당겨보시고는 더 만류할 사이도 없이 거기에 올라서시였다.

한계단 또 한계단…

옥죄여드는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던 일군들이 뒤이어 철사다리를 타고 올랐을 때 그이께서는 벌써 조정지순회점검다리의 한가운데 서시여 주변의 전경을 부감하고계시였다. 이윽고 저수량이 괜찮다고, 물이 언제나 차있으니 전기를 생산하는것은 물론 그 물로 음료수도 보장하고 농사도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군안의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으로부터 인민들이 전기덕을 보고 먹는물도 충분히 보장받으니 로동당만세를 부른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제 발전기를 더 설치하여 전기덕을 단단히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제서야 뭇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여기에까지 군이 오르신 그이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푸르른 물결에 비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안아보고싶으시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전기강, 보배강의 출렁임소리를 듣고싶으시여 위험한 철사다리에도 서슴없이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어 군에 어떤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현대화정형에 대해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군안의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철사다리,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수범으로 일군들을 이끌어 세워주신 복무의 좌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험한 길도 선뜻 택할줄 아는 일군, 그 길에서 인민생활의 밑바닥까지 헤아려보고 인민의 웃음꽃을 더 활짝 피워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당부를 새겨안게 하는 력사의 증견자였다.

궂은 길과 유람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찾아주신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건조한 《무지개》호가 이름그대로 칠색령롱한 무지개같이 멋있다고, 《무지개》호를 대동강에 띄워놓으니 대동강이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봉사선의 매 방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쓰시며 의자에도 앉아보시고 비품들도 세심히 살펴보신 그이이시였다.

이날 커다란 만족속에 봉사선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더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자신께서는 비내리는 궂은 길, 험한 령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들이 즐겁고 특색있는 유람의 한때를 보내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미소를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본사기자

그이의 미소

세계는 각이한 표정을 안고있다. 재부의 축적으로 맛보는 기쁨과 쾌감, 분쟁과 류혈로 빚어진 공포와 비분, 모순과 혼돈속에 살길을 찾는 불안과 갈망…

바로 그속에서 이 땅에도 자기 특유의 표정이 흐르고있다. 이 땅에서 피여나는 한점의 웃음마저 없애버리기 위해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여도 여전히 이 나라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신다.

어려울 때 짓는 웃음은 신념을 동반한다. 하다면 그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굳게 자리잡고있는것인가.

지난해 11월 19일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기쁨에 넘치신 영상사진이 모셔졌다.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랭동저장고들마다 꽉 들어찬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시면서 금괴를 올려쌓은것 같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돌이켜보면 5년전 11월과 4년전 12월 그리고 두해전 11월의 그날들에도 수산사업소들을 찾으시고 세상에 물고기보다 더 귀한것은 없으신듯 보물산이라고, 금괴같다고 하시며 기쁨에 넘쳐 물고기블로크들을 쓸어보시고 들어보신 그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경제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제시하신 과업의 하나도 고기배를 대대적으로 무어 물고기를 많이 잡을데 대한 문제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기 몇시간전에 마지막으로 친필비준하여주신 문건도 바로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줄데 대한 문건이였다고, … 나는 물고기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생각이 나서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래서인가 그이께서는 물고기폭포가 쏟아진다는 소식을 받으실 때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군 하시였고 비린내풍기는 물고기절임탕크의 턱에도 허물없이 앉으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쏟아지는 물고기를 바라보시며 《바다만풍가》의 노래도 흥겹게 부르시였다.

언제인가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질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인민의 재부가 늘어날 때마다 무한한 희열을 느끼고계신다. 지난 8년세월만 놓고보아도 이 땅에 릉라인민유원지, 옥류아동병원,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 현대문명과 기술이 응축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설 때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해빛같은 미소를 보내시였다.

놓고보면 그 미소속엔 뜨거운 헌신이 어려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거듭되는 만류도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키며 흙먼지날리는 험한 건설장에도 찾아가시였고 화염이 솟구치는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시였다. 북방의 삼지연시만 놓고보아도 인민의 리상도시,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비내리는 진창길과 삼복의 폭염, 한겨울의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체107(2018)년 한해에만도 세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의 나날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신 형성안은 수없이 많다.

하기에 그이의 미소를 대할 때마다 인민들은 누구나 눈굽을 적신다. 땀에 젖고 비에 젖으며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로고가 어려와 울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힘을 주시고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모습에 끌려 신심높이 자기의 걸음을 앞당기고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드높이 자력으로 최근년간 적대세력들을 전률케 하는 장비들을 다발적으로 만들어낸 기적도,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스키장과 승마장까지 갖춘 다기능화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통이 크게 일떠세운 위훈도 결코 우연치 않다.

그이의 미소는 인민들에게 있어 만난을 헤치고 기적을 낳게 하는 힘이고 시련이 겹쌓일수록 분발케 하는 래일에 대한 확신이다.

언제나 만년장설도 녹일 태양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그이,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하시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실 철의 의지가 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제품의 질을 담보해간다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책임부원 임영식과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지금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열풍이 힘있게 일어번지는 속에 국제기준의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은 단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서 품질인증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부원: 옳은 말입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제품이나 생산공정 등이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주는 품질인증은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품질인증은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검사와 그 제품과 관련된 품질관리체계를 심사 및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단위에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호를 사용할 권한을 줍니다.

공장, 기업소가 품질인증을 받자면 국제규격화기구가 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품질인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과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도 품질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품질인증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품질인증을 받아들이고있는데 이것은 품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 한 나라를 벗어나 국제적범위에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나라들사이에 품질인증을 호상승인하는 협정을 맺고있습니다.

이 과정에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인증한것처럼 여기고 재인증을 하지 않는 등 무역거래에서 특혜를 받게 됩니다.

기자: 국제적기준에 맞는 인증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책임부원: 국제적기준에 맞는 인증에는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의약품생산및 품질관리기준(GMP) 등이 있습니다.

기자: 최근년간 국내 여러 부문에서 국제적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은 단위들이 많이 늘어나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책임부원: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들이 선호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과정에 국제적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은 단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류경김치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선흥식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과자와 빵, 김치, 만두, 영양암가루, 말린 수산물 등 각종 제품생산공정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문난 대동강맥주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된 천연탄산광천수인 강서약수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명등록증서를 받은 조선의 유명한 특산물들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평양수지연필공장 수지연필생산공정,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주철생산공정, 봉화비누공장에서 빨래비누, 세수비누, 세척제생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고 제품의 질제고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안아왔습니다.

희천고려약공장, 평천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고 질좋은 의약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도 화장품생산공정, 사과생산공정에 대한 화장품 GMP, 농수산물 GAP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민경제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으며 제품의 질을 높여 2월2일제품,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은 더 활발히 벌어질것입니다.

* * *

대상설비생산자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난해 기업소는 강원도의 이천과 문천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의 발전설비들과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순천린비료공장건설 등의 중요대상설비들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새해에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설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는데 기술발전의 중심고리를 두고 생산을 짜고들고있다.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설비와 대상설비들을 현대적으로 설계제작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최신설계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하고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인 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12 000kW 14극 수력발전설비를 세계적추세에 맞게 현대적으로 설계한 성과에 토대하여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치고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직장의 중요가공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CNC화된 가공설비들의 장치와 조종프로그람들을 갱신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설비들과 지구장비들을 설계제작하여 부분품들의 질을 높이는 등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세워가고있다.

이밖에도 기업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 어느 직장에서나 생산자대중이 자체로 창안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소재부문에서는 연소모형주조기술을 비롯한 합리적인 조형방법을 받아들여 주강품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다.

제관부문에서는 자동용접공정을 확립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제관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부분품가공에서도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고있다.

CNC화된 가공설비들에 타빈날개의 곡면가공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고 발전기의 스라스트메달을 단번에 10개씩 가공할수 있는 창안을 하여 공정주기를 2배로 장성시켰다.

조립부문에서도 고정자권선레아시험기를 제작도입하여 권선절연의 특성을 검토할수 있는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소형기중기도 창안제작하여 발전설비조립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 기사장 양문상은 《우리 대안의 로동계급은 오늘의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맡은 임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설계를 앞세워간다.



레이자절단기에 의한 철심생산









더 많은 돌가공품들을

석재가공품은 건축물의 품위를 보장하고 만년대계를 담보해주는것으로 하여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평양시 서성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석재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돌가공품들이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근 60년의 력사를 가진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수만여㎡ 능력의 생산토대를 갖추어놓고 생산을 장성시키고있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간화강석과 인조돌판, 란주, 란간 등 다양한 건재품들을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공장은 평성시의 삼룡리에 꾸려놓은 한수석분광산의 운영에 힘을 넣어 지난해에 8 000여t의 한수석도 생산보장하였다.



새해에도 공장에서는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하여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면서 원석을 비롯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부단히 개조하여 생산효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경영전략에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는 레이자빛에 의한 수감장치를 절단기에 도입하여 돌가공의 실수률을 높이고 톱날의 합리적인 재생리용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자재와 부속품들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생산을 배로 늘이였다.

또한 내수합판휘틀에 의한 인조석생산을 받아들여 원료소비를 줄이고 종전에 비해 생산원가를 20％로 낮추었다.

이밖에도 생산과정에 나오는 석분가루를 리용하여 블로크를 생산하고 각종 돌가공품의 받침대와 부분품, 돌가시대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장지배인 리윤호는 《앞으로 기술혁신운동을 더 힘있게 벌려 늘어나는 돌가공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

오늘 조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조명과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얻기 위한 사업이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있다.

그러한 속에 평안북도송배전부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천kW능력의 자연에네르기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지배인 조선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는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한 때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것이 아니라 제손으로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목표밑에 발전소건설을 발기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하여 이들은 신의주시 마전지구에 풍력과 태양빛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부분품들을 만들었으며 비동기전동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도 다그쳐나갔다. 이 나날 여러차례의 모의실험이 진행되였고 그 과정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1 000m에 달하는 동뚝구간에서 수십개의 풍력발전기와 수천개의 태양빛전지판들의 설치와 결선작업이 진행되였다.

평지도 아니고 경사지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였지만 그들은 태양빛전지판의 설치각도를 과학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비바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태양빛전지판들을 든든히 고정시킬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들도 적극 받아들이였다.

자연에네르기발전소가 조업된 후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정상공급되고있다.

그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자연에네르기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련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력사인물

개화사상의 선각자 박규수

박규수(1807년－1876년)는 조선봉건국가의 개화사상의 선각자이다.

그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로서 실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탐독하고 연구하였다.

1848년 과거시험에 합격한 그는 1854년에 경상좌도안무사가 되였으며 1861년에 청나라에 갔다. 이곳에서 서유럽자본주의침략자들이 도발한 제2차 아편전쟁의 후과를 직접 보고 느끼였다. 그는 귀국후 성균관대사성이 되였다. 1866년에는 평안도관찰사로 임명되였으며 《서먼》호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측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규수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적들은 철갑선을 가지고 침입해오는데 우리는 목선으로 대항하며 적이 현대적총포를 사용할 때 화승총이나 활로 싸우니 이길수 없다고 하면서 시급히 무장장비를 갖출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민생문제에서 가렴잡세의 징수를 시정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쇄국을 할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개국을 하여 문물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872년 베이징에 사절로 갔다온 이후 그는 점차 개화사상의 옹호자로 나섰다.

그는 김옥균(1851년－1894년)을 비롯한 개화를 지향하는 선진청년들에게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가르쳤다.

문집으로는 《환재집》 전 5권이 있다.

* * *

한시도 마음을 놓아선 안될 방역사업

-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소장 김철수와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운 류행성전염병들이 발생하여 전파되고있는데 이것은 위생방역사업을 보다 철저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소장: 그렇다.

지금 우리 주변나라에서 《COVID-19》가 급속히 전파되고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시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고 이 비루스가 우리 나라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게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라에서는 《COVID-19》의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지난 1월에 전환하였으며 중앙과 도, 시, 군들에 비상방역지휘부가 조직되여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통제, 대책하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이 전염병이 들어올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고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지점들에서 검사검역사업을 강화하며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 외국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고있다.

해당 단위들에서 이 전염병의 검사시약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있다.

위생방역사업은 현실에 대처한 림시적인 사업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조국에서는 사회발전의 매 시기마다 위생방역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왔다.

그처럼 어려웠던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여러가지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되고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예방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시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전염성질병들이 발생전파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회경제발전을 엄중히 위협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세워 국내에로의 전염병의 침습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사회적안정을 적극 담보하여왔다.

기자: 우리 나라 위생방역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소장: 그것은 전문적인 위생방역기관들이 중심이 되고 모든 치료예방기관들과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여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위생방역체계가 서있는것이다.

찍어말하여 위생방역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나라의 위생상태와 역학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 도, 시, 군들에 위생방역소가 있으며 리, 동에는 그를 담당한 의사들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체계밑에 국가에서는 매해 3, 4월을 위생월간으로 정하고 전체 인민이 동원되여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문화위생적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도록 하고있으며 모든 보건기관들, 보건일군들이 방역사업과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 등에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들은 조선에 정연하게 세워진 위생방역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기자: 위생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고있는가.

소장: 전국가적으로 실시간 전염병, 질병감시체계를 더 강화하고 중앙위생방역소에서는 전국위생방역사업의 참모부답게 자기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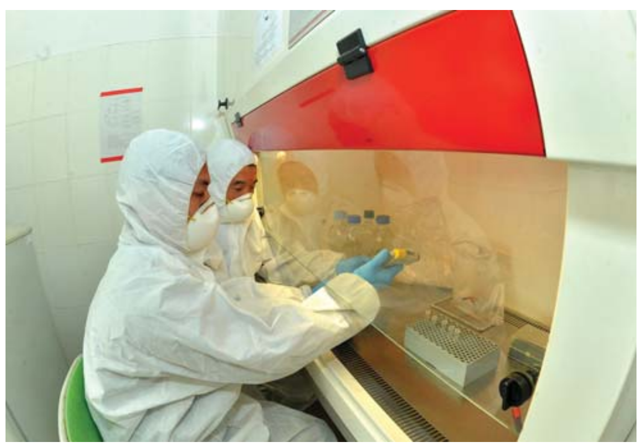
모든 연구사들의 과학기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진단 및 실험설비들을 더욱 과학화, 현대화하고있다.

그리고 모든 기관, 기업소, 주민지구들에서 위생규범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 공기와 물을 비롯한 나라의 환경을 잘 보호관리하며 국경과 비행장, 항만들에서의 검역사업을 더 발전시켜 전염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지역별, 단위별로 전염병에 대한 강연회, 강습, 출판선전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위생방역사업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선 안될 사업이다.

*　*　*

《COVID-19》를 차단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여러가지 병원균들에 대한 검사



전염병에 대한 선전활동을 벌리고있는 의료일군들





실습을 통한 강의를 진행하고있는 김인규(가운데)

시대가 부르는 사람

지난해 조국에서는 시대의 전형들을 신문과 텔레비죤으로 소개하였다.

그들중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강좌장 김인규도 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수많은 대학생들을 나라의 강철공업을 떠메고나갈 인재로 키우고 강좌를 실력가집단으로 만들었으며 과학연구사업을 꾸준히 벌려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　권

주체74(1985)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김인규강좌장이 교원들에게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다.

《하나를 가르치기 전에 열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학생들의 열백가지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수 있다. 교육자에게 있어서 실력은 교권이며 인격이다.》

수십년세월 그는 자기자신부터가 이것을 지켜왔다.

경제과학분야를 취급하는 학과목의 특성으로부터 응용수학, 물리학, 전기공학, 야금학을 비롯한 전공 및 전공기초, 린접과목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그는 밤잠을 잊다싶이 하였다.

합숙으로 오가는 시간이 아까와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강의준비를 하였고 피곤이 겹쌓일 때에도 찬물에 발을 잠그고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강의와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충하기 위해 방대한 최신과학기술자료들과 연구성과들도 번역하였다.

그는 각종 공업로와 기계설비의 설계와 콤퓨터모의는 물론 그 자동화계통까지 손금보듯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기계설비들을 뜯어보고 그 원리를 밝혀내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그 과정에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였고 《공업로가열기술》, 《야금열공학》을 비롯한 여러개의 새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소론문도 집필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그러한 성과들이 자기가 맡은 공업로공학강좌 교원들속에서도 이룩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하여 그가 맡은 강좌에서는 3명의 2.16과학기술상수상자와 공훈과학자, 4명의 박사와 5명의 부교수를 배출하였으며 10여명의 석사를 양성하였다.

교원들의 실력이 올라가니 학생들의 실력도 자연히 올라가 졸업생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한몫하는 유능한 과학자들로 성장하였다.

보　람

대학교원들의 삶의 보람은 교육사업뿐아니라 과학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김인규강좌장은 교육사업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앞장섰다.

주체99(2010)년 3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중유를 쓰지 않는 압연가열로를 설치할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중유를 쓰지 않는 가열로를 건설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면서 가열로건설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김인규강좌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금속공업부문에서 국내의 연료에 의거한 철생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의 박사원생들과 함께 이 연구사업에 적극 나섰다.

그들은 설계에서 사소한 오차가 가열로의 폭발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을 다 예상하여 수백차례의 콤퓨터모의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낮과 밤을 이어가며 방대한 설계를 20일동안에 끝낸 그들은 로동자들을 도와 가열로건설의 기술적방조도 주었다.

지칠줄 모르는 그들의 탐구와 노력에 의해 마침내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가 완공되였으며 주체100(2011)년 4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보여드릴수 있게 되였다.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를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열간압연공정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인것은 최근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인규강좌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금속공업부문 단위들의 가열로들에도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여 단번성공하였고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무연탄가스로 로온도를 1 700℃이상 올릴수 있는 2단축열식고온공기연소기술을 개발하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내화물소성로에 도입하였다.

쇠물을 끓이는 연료처럼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며 나라에 실로 막대한 리익을 준 로력영웅이며 박사, 부교수인 김인규강좌장.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앞장서 달리고있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 조국은 더 높이, 더 빨리 달리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여러 전람회에서 받은 제품발명권들에 대해 설명하는 김인규(가운데)



지능계발교육방법들을 창조하여

평양교원대학에서 유치원, 소학반어린이들의 지능을 빨리 계발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창조, 도입하여 그 우월성을 검증하였다.

그것이 바로 주산놀이를 통한 지능계발방법과 로보트에 의한 종합교육방법이다.

얼마전 기자는 평양교원대학부속 세거리소학교와 광복소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외소조에 망라되여 지능계발교육을 받고있는 모습을 지면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주산교육이 한창인 소조실에서 학생들은 교원의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전자칠판에 1초간격으로 현시되는 20개나 되는 세자리수, 네자리수에 대한 더하기, 덜기계산을 눈깜빡할사이에 해나갔다.

더우기 학생들이 탁구를 비롯한 체육활동과 함께 중어나 로어, 영어로 류창하게 글짓기를 하면서 속산하는 모습은 장난세찬 철부지아이들이라는 생각을 아예 잊게 하였다.

교육정보실 실장 차은별은 모두가 소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주산교육을 받은지는 4달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 종합교육방법을 구현한 주산교육이 전국의 모든 소학교뿐아니라 유치원들에도 도입되고있는데 그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산을 통한 지능계발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주산에 의한 계산을 시작해서 빠른 경우 15일정도 지나면 오른쪽뇌에 주산의 영상이 새겨지게 된다. 이때 종합교육을 주면 학생들은 여러 과목들이 서로 공존하는 속에서도 주산없이 복잡한 사칙계산을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 주의분배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학생들의 계산능력을 높여주는 주산놀이는 그들이 앞으로 모든 일에서 백만배이상의 계산능력과 사업능력을 갖추어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

대학에서는 로보트에 의한 종합교육방법도 새롭게 창조하였다.

이 방법은 지금 시범교육단계를 거쳐 유치원과 소학교들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실장 김원향은 《로보트교육은 아이들의 환상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켜줌으로써 그들의 지능을 계발시켜준다. 실례로 풍력발전기로보트에 대한 교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평양교원대학부속 광복소학교의 2학년 김진학생은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되였다.

음률동작에 따르는 속산교수방법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 도는 식물이다. 이것은 잎이 해를 받는데 적응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해바라기의 특성을 리용하면 태양열가열장치로보트를 만들수 있지 않을가.〉

비록 그의 착상은 과학적인것은 못되지만 그 나이에 벌써 생물모방기술을 생각한다는것 그자체가 정말 놀라왔다.》라고 말하였다.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에서

광복소학교 3학년 학생들의 로보트교육을 맡은 교원 김정아는 학생들이 5차원설계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자기가 착상한 로보트를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며 조종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그들은 자기의 《창조물》에서 이를데 없는 기쁨과 앞으로 더 훌륭한 로보트를 만들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로보트수업이 한창인 소조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로보트부분품들의 개수에 대한 속산을 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소감과 결의들을 외국어로 발표하는데 소학반학생들의 지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움을 자아내였다.

이외에도 주목되는것은 대학에서 어린이들의 과외소조에 대학생들을 적극 인입시켜 그들이 학생들에 대한 집체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통해 실천실기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는것이다.



오른쪽뇌에 의한 수학적계산방법

로보트에 의한 지능판단을 진행한다.



인기를 획득한 《천년》화장품들

지난해 제1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에서였다.

많은 녀성들이 화장품매대앞에 모여있었다.

그들은 매대에 전시된 《은하수》, 《봄향기》, 《금강산》, 《팔선녀》, 《천년》상표가 붙은 화장품들을 보고 떠날줄 몰랐다.

그들중 한 녀성이 《이 〈천년〉상표를 단 여드름제거살결물이 정말 좋습니다. 한두번 바르면 여드름이 제거되여 피부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때 하나 더 사려고 왔습니다. 아마 개발자가 녀자인 모양입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천년》화장품에 대한 녀성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얼마전 향련기술교류사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최명성 향련기술교류사 사장은 교류사가 화장품개발을 시작한지는 4년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화장품들의 개발자인 리정렬부원을 소개해주었다.

녀성들이 알고싶어하던 개발자는 다름아닌 남성이였다.

그는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피부에 돋아난 여드름으로 마음쓰는 녀성들을 보게 되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 화장품연구에 뛰여들었다고 하였다.

하여 그는 여러 문헌도 탐독하고 피부질환중의 하나인 여드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리정렬부원은 자연이 창조한 기적의 물질인 파일산, 히알루론산, 피부주름방지에 없어서는 안될 콜라겐 등을 기본조성으로 하면서도 항균제를 넣은 여드름제거살결물을 개발하게 되였다.

이 살결물은 주체106(2017)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젊음을 바라는 녀성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후 교류사에서는 파일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밤크림, 미백살결물을 비롯한 화장품들도 개발하였으며 이 화장품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화장품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루에도 수많은 녀성들이 좋은것을 개발하였다고 교류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우리는 녀성들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가꾸어주기 위하여 더 많은것을 연구해낼 결심입니다.》

리정렬부원은 사람좋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전시회들에서 녀성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교류사에서 개발한 기능성화장품들



제품에 대한 의견을 합쳐간다.

가상교수체험세계에서 설계한 수업을 직접 해보는 과정에 대학생들은 정황에 따르는 심리체험, 심리조종 등 여러 교수수법들을 부단히 익혀나가고있다.

지금 대학안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현 교육발전추세에 맞는 우리 식의 새로운 지능계발교육방법들을 계속 창조해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상 식

민족의 유산 고려자기

고구려의 도자기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고려시기의 자기공예는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세계 중세도자기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려자기의 특징은 우선 형태가 다양하고 아름다운것이다. 고려자기에는 잔, 병, 사발, 접시, 주전자, 단지, 화분, 화장함, 벼루, 붓꽂이 등 여러가지 품종이 있다. 자기들은 같은 품종이라 하여도 그 모양은 다양하다. 접시 하나만 보아도 큰것과 작은것, 굽이 높은것과 낮은것, 둥근것과 8각, 10각 등 천태만상을 이루고있다.

고려자기의 특징의 다른 하나는 색갈이 밝고 우아하며 은근하면서도 부드러운것이다. 고려자기의 대표적색은 비취옥과 같은 비색 즉 광택을 내면서도 고상하고 웅심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푸른색이다.

고려자기의 다른 특징은 그윽하고 정서적인 장식무늬이다. 고려자기에 형상한 무늬는 인물, 동물, 식물, 글자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무늬색조의 대조와 배색법이 뛰여나며 무늬구성이 째이고 섬세하였다.

고려자기는 우리 인민의 창발적인 지혜와 예술적재능의 산물로서 우리 민족의 자랑찬 공예유산의 하나이다.

* * *

기대되는 꼬마작곡가



최령룡

강원도 원산시 평화유치원에는 선생님들과 마을사람들로부터 꼬마작곡가로 불리우고있는 어린이가 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높은3반의 최령룡어린이이다.

그에게는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이다싶이 선률을 창작해온 부피두툼한 음악학습장이 있다. 한권한권을 묶어놓아 하나의 악보책과 같은 학습장의 갈피갈피에는 그의 음악적성장과정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는 음악에 천성적인 소질이 있었다. 2살 나던 해에 부모들과 상점에 갔던 그는 놀이감이 아니라 악기를 사달라고 지꿎게 졸랐다고 한다.

령룡이의 어머니 허정숙녀성의 말에 의하면 집에는 그의 성화에 못이겨 사놓은 손풍금, 피아노, 기타, 장고, 북, 반고 등이 있다고 한다.

그후 령룡은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면서부터 자기의 음악적재능을 꽃피웠다. 기초교육단계에서 다른 어린이들보다 음감이 빠른것을 발견한 김영란교양원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그를 앞으로 훌륭한 연주가로 키울 생각을 하였다. 피아노교육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 그는 높은반 어린이들의 연주수준을 따라앞섰다.

그러던 어느날 교양원은 령룡이가 해안공원에서 자연관찰을 하고온 자기의 감정을 선률에 담는것을 보게 되였다. 비록 미숙한 선률이였지만 교양원은 그에게서 작곡가로 될수 있는 재능의 싹을 찾게 되였다.

교양원은 그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창작의 나래를 펼수 있도록 자주 계기를 조성해주는 한편 생활에서 받은 충동과 감정을 꼭꼭 선률에 담도록 착상도 틔워주었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을 청하여 작곡의 폭을 넓혀나갈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애썼다.

음악학습장의 페지수가 늘어갈수록 령룡이는 놀라운 발전속도를 보여주면서 꼬마작곡가로서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다.

음악적재능을 한뽐한뽐 키워온 령룡이는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가 작곡한 노래집 《선참 드리자》를 올려 기쁨을 드리였다.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몸도 마음도 한껏 자래우며 재능을 꽃피워가는 최령룡어린이, 유치원의 자랑이며 마을의 자랑인 꼬마작곡가의 밝은 앞날을 모두가 축복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동무들과 새로 지은 노래를 불러본다.



오선지에 새 노래곡을…



색진흙놀이에 여념이 없다.



피아노수업을 받고있다.



상식

더운물에 발 담그기

더운물에 발을 자주 담그면 무릎이나 허리아픔 등 여러 질병치료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

더운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큰 바께쯔에 42~43℃의 더운물을 무릎아래까지 붓고 온몸에 땀이 축축히 날 때까지 발을 담그면 된다. 목욕통에서 진행하는 경우 상반신은 옷을 입고 진행하는것이 좋다.

발의 피로나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운물에 발을 그저 담그어두지만 말고 발밟기를 동시에 하면 더 좋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랭증과 머리아픔도 치료할수 있다.

* * *

상식

잉어장식품

예로부터 잉어는 민물고기중에서 힘이 있고 령리한 물고기로, 영양가가 높은 보약재로 알려져있다.

이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잉어를 상징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그것을 치레거리의 하나로 리용하였다.

삼국시기에는 잉어를 본딴 치레거리를 허리띠장식품으로 리용하였다.

한때 관리들의 허리에 차는 어대(군사지휘관의 위임장을 넣는 물고기모양의 비단주머니)도 잉어를 형상하여 만들었다.

잉어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여러 생활품들의 장식대상으로 널리 쓰이였다.

* * *

따뜻한 정



김노을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제57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이 진행되였다.

경연의 고급중학교부류 성악종목에서는 자강도 희천시 희천초급중학교 학생인 김노을(13살)이 금메달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10살때부터 고급중학교부류 성악종목에 출연하여 동메달, 은메달을 쟁취한 노을은 그때 벌써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성악가수후비로 지목되였다.

경연심사성원인 림성원은 《남달리 빠르게 변성된 노을의 목소리는 곱고 음정이 정확하며 성량이 풍부한것이 특징이다. 현재 노을의 성악수준은 그보다 3~4년 우인 청소년들의 수준을 압도하고있다. 정말이지 노을은 이번 경연에서 몰라보게 발전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실현해가는 새 세대들의 모습뒤에는 항상 그 재능을 찾아주고 꽃피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노을학생도 다름이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실지 노을은 고마운 사람들의 보살핌속에서 자라난 행복동이였다.

노을은 2살 나던 해에 뜻밖의 사고로 량부모를 잃었지만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자랐다. 희천시에 사는 김명환, 강혜란부부가 노을의 친부모가 되여 따뜻이 보살펴주었고 이웃들도 부모가 된 심정으로 성의껏 보살펴주었다.

유치원시절 노을의 성악적소질은 그의 어머니가 되여준 강혜란녀성에 의해 발견되였으며 그것은 어머니와 교양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싹트고 자라나게 되였다. 특히 어린 노을에게 음악적 기초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익혀주기 위해 교양원들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정에 떠받들려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곱고 감수성이 빠른 노을의 발전은 빨랐다.

노을은 시에서 진행된 재간둥이들의 경연무대에서 1등을 하게 되였고 도와 중앙의 여러 경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친어머니가 된 강혜란녀성(왼쪽)



그후 노을의 소학교, 초급중학교시절의 성악지도는 희천시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인 송정순이 맡아하였다.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지도교원은 노을의 유치원시절의 음악적기초를 세련시켜주는 한편 목소리변성과 음정, 발음 등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해결해나갔다.

노을이가 가사의 발음을 정확하고 감동깊이 하게 하기 위해 지도교원은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아내고 구현해나갔으며 아래소리와 웃소리융합이 조화롭지 못하고 호흡관계로 지속성이 부족한 결함들을 고쳐주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였다. 뿐만아니라 그가 앓을세라 어머니된 심정으로 건강을 돌봐주었다.

언제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

축전을 앞두고 성악연습에 열중하던 노을이가 그만 앓아눕게 되였다. 그때 그는 치료효과가 좋은 약재를 구해오기 위해 먼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부모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치료해주어 노을이가 축전에 참가하여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였다.

그에게 바쳐진 사랑과 정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노을의 성장을 자기 자식의 일처럼 기뻐하며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노을은 커가면서 자기를 위해 마음쓰는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럴수록 친부모가 되여준 고마운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 애쓰는 스승들, 자그마한 그늘이 질세라 관심을 돌려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가슴속에서 점차 자라나게 되였고 그 마음이 그대로 희망을 실현해가는 정신적바탕으로 되였다.

노을은 오늘도 그런 마음을 안고 노래를 부르고있다.

아픈 사람, 불행을 당한 사람일수록 더 마음쓰며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대지, 인간의 덕과 정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조국을 노래하는 가수가 될 꿈을 안고 그는 부르고 또 부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기철

훌륭한 성악가로 키워가는 송정순지도교원(오른쪽)



목표는 첨단돌파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첨단생물제품개발실 연구사들의 귀중한 시간이 얼마전 우리에게도 애써 차례졌다.

우리와 만난 실장인 교수 박사 박영주는 올해 60살이였다.

그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의 연구사들은 첨단기술개발로 우리 식의 인터페론과 알피메프라제를 개발하고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실력가들이였다.

이 연구소는 주체73(1984)년 6월에 조직되였다.

그때부터 생물공학적방법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였다.

그들은 당시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가 독점하고있던 인터페론생산방법을 첨단수준에서 확립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사람의 몸안에서 비루스의 증식을 억제하면서도 항종양작용이 있는 단백질성물질로서 비루스성질병의 예방과 치료, 암치료에 쓰이는 인터페론은 생물공학기술인 유전자발현기술과 단백질재구조화기술을 리용하여 만들어지고있다.

실험, 실험 또 실험.

수백, 수천번의 실험이 바로 그 연구실에서 진행되였다.

참고문헌들에 씌여진 남의 식이 아니라 우리식의 유전자발현기술과 단백질재구조화기술을 첨단수준에서 확립하여야 한다는것이 그들이 세운 목표이였다.

그들은 인터페론연구가 시작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 인터페론생성량에 있어서나 생성된 인터페론의 생물학적활성을 보장하는데서 앞선 나라들의 수준을 훨씬 돌파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종전의 인터페론분리정제공정을 간소화하여 원가를 훨씬 낮추면서도 생산량은 무려 1 000배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한해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항비루스약물이 짧은 기간에 생산되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입게 되였다.

그후 이 연구집단은 페니실린의 생산량을 높이

고 조류독감예방약개발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스스로 맡아하였으며 그 나날 첨단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또다시 돌파할 목표도 내세웠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효능이 높은 혈전용해제로 알려진 알피메프라제를 국산화하는것이였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알피메프라제개발은 그 출발물질이 남아메리카의 살모사독속에 포함되여있는 섬유소분해효소유전자인것으로 하여 유전자합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조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누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미개척분야였기때문이였다.

이 기술 또한 난도가 높고 품이 많이 들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조방법 다시말하여 새것을 창조하여야 하였다.

연구집단은 우리 식,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지혜를 합치였다.

참고할만 한 문헌도 경험자료도 없었지만 이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각오만을 안고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갔다.

그들은 마침내 비병원성대장균을 리용하여 알피메프라제봉입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첫걸음을 뗀데 불과했다. 알피메프라제봉입체를 알맞는 생리적환경속에서 재구조화하는 과정 또한 고심참담한 탐구의 길이였다. 격렬한 론쟁과 예민한 반복실험, 자료조사와 문헌연구로 날과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였다.

생물활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몇가지밖에 안되는 첨가제를 선택하는데만도 반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 어떤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고 완강한 의지로 다시 접어들어 기어이 성공시키며 한걸음한걸음 나아가는 속에 우리의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도 투철해졌고 신심도 생겼다.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애쓴 보람이 있어 드디여 혈전용해제인 알피메프라제(재조합살모사독혈전주사약)가 첨단기술제품으로 개발되게 되였다.

이들이 개발한 주사약은 이전시기에 나온 3세대혈전용해제보다 혈전용해속도와 활성이 4～6배나 높고 출혈부작용이 거의 없는것으로 하여 심근경색과 뇌혈전을 비롯한 혈전성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것이 림상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높은 혈전용해활성과 작용속도, 섬유소에 대한 직접적인 분해작용, 적은 출혈부작용 등 혈전용해제로서의 리상적인 지표들을 충분히 갖춘것으로 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혈전용해제는 이렇게 개발되였다.

오늘도 그들은 첨단돌파의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실험실에서



개 발 된 혈전 용해제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인민들속에서 《만경대》상표를 단 멜라민수지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은 전시된 《만경대》멜라민수지제품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를 더해주는 제품들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열견딜성과 전기절연성이 강할뿐아니라 표면경도가 매우 좋아 사용에 편리한 밥, 국공기들과 접시, 종합다반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그릇류들이 놓인 제품전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제품들은 만경대구역 선구자동에 위치하고있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전국의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전적지들에 보내줄 기념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의 질을 높이고 그 품종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공장을 대표하는 기념품은 멜라민수지제품들이다.

지난 시기의 낡은 뇨소수지성형공정을 현대적인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으로 새롭게 꾸려놓은 공장에서는 지금 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종업원들속에서 화지도안창작을 비롯한 제품의 다양화, 다색화, 다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특색있는 창의고안들이 나와 생산에 적극 도입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재자원화의 요구에 맞게 공장에서 멜라민수지성형과정에 나오는 많은 량의 원료부산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건재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이다.

기사장 한경일은 생산과정에



평양에서 다시 만난 서기장


추근영

지난해 12월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 60돐 기념보고회에 참가한 대표들속에는 평안북도의학협회 서기장 추근영도 있었다.

몇달전 평안북도의 신의주시취재길에서 서기장을 처음 알게 된 후 우리는 평양에서 그와 두번째로 상봉하였다.

추근영은 기념보고회장에서 받은 감동이 아직 가셔지지 않은듯 흥분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동포들을 혁명동지로 굳게 믿어주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줄뿐아니라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고 누구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활짝 꽃피울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조국의 고마움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되새겨보게 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동포들과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상설기구를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조직해주시고 귀국동포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안착되여 생활할수 있도록 살림집과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어주시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추근영은 많은 귀국동포들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 교수, 박사들로 생을 빛내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는 추근영의 눈가에 회억의 빛이 비끼였다. 그도 따사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여온 자기의 한생을 더듬어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였다.

두살밖에 안되던 추근영이 조국의 품에 안긴것은 지금으로부터 58년전이였다.

일본땅에서 갖은 민족적모욕과 설음을 이겨내며 살아야만 했던 재일동포들에게 귀국의 넓

나오는 원료부산물을 미분하여 거기에 보온, 습기조절, 살균작용 등 약용적가치가 큰 역삼을 첨가하여 내벽장식수지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공정이 지금 시험단계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현대적미감에 맞는 완구, 가방, 모자, 각종 장식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념품들도 생산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능력이 큰 현대적인 쟈크와 점착제생산공정도 갖추어놓았다.

생산되는 다양한 쟈크와 점착제들은 부속자재로서 전국의 학생용가방과 교복, 신발, 체육용품생산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10월 6일 공장을 찾으시여 현대적인 쟈크생산공정과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공장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이곳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공장의 종업원들은 새해에도 질좋은 《만경대》상표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은 배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대해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의 그였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서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할 일념을 늘 안고 살아왔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신의주의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그는 대학의 림상연구실 연구사, 실장으로, 40대 초반기부터 오늘까지 의학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에 많은 정열을 바치였다.

의사들의 자질향상문제와 실력평가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갔으며 특히는 나라의 의학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의학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참가하였다.

늘 의사들속에 들어가 그들과의 사업을 혁신적으로 밀고나갔으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가는 그를 두고 모두가 《우리 서기장》이라고 부르며 존경하여 따랐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여러 행사들에도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국가수훈의 영예도 지니였다.

지금도 일본에 살고있는 그의 고모와 조카들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추근영의 성장을 두고 못내 기뻐하고있다고 한다.

추근영은 《60년전 12월 16일 첫 귀국선이 조국땅에 닻을 내리게 된것은 나를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삶을 긍지높이 빛내여준 사변으로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추근영과 같은 귀국동포들이 어제도 오늘도 그러하였던것처럼 래일도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자랑찬 삶의 자욱을 찍어가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재일동포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 60돐
기념보고회에 참가하고 친우들과 함께



조선속담 (겸손한 성품)

— 이삭은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는것이 많고 수양을 쌓은 교양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물이 깊고 많으면 흐르는 소리가 나지 않듯이 수양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난다

실지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티를 내지 않고 겸손함을 이르는 말.





편집계획을 토론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



취재대상에 대한 료해를 심화시키는 김연주국장과 류창환

동포들이 기다리는 친근한 길동무로

재중동포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모여 즐겨 읽군 하는 출판물이 있다.

그것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발간하는 《백두－한나》잡지이다.

동포들이 알고싶어하고 듣고싶어하는 다채로운 조국소식과 내용들을 담고있는 잡지는 1990년대초에 나오자마자 동포들속에서 인기를 끌었다.

고정란들을 설정하고 여러가지 흥미있는 소식들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동포생활의 이모저모를 펼쳐보이는것으로 하여 재중동포들은 누구나 잡지를 좋아하고 기다리고있다.

특히 2월과 4월에 발간되는 잡지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내용의 기사들을 실어 동포들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각 지구협회들과 각 지부들의 소식도 다양하게 편집하고 조국에서 진행되는 새라새로운 소식들을 여러장의 사진과 배합하여 게재함으로써 누구나 항상 조국소식을 알고 총련합회에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알게 하고있다.

이외에도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고 쓴 인상기와 기행들을 아기자기하면서도 재미나게 편집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동포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조국에 와보지 못한 많은 동포들은 잡지를 읽으면서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며 크나큰 민족적긍지에 넘쳐 총련합회사업에 발벗고나서고있다.

잡지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각 지부들에서 보내온 편지들도 실리군 한다.

지구협회의 일군들이 생활상불편을 겪고있는 동포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준 사실과 심양시지부를 비롯한 많은 지부들에서 조국의 발걸음에 발맞추어나가자고 해설모임을 진행한 내용을 담은 편지들은 동포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있다.

잡지가 동포들이 즐겨 기다리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는데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언제나 잡지가 동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그들이 백두산하늘아래서 사는 긍지를 가지고 조국과 하나의 심장, 하나의 숨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총련합회일군들모두가 기자가 되고 편집원이 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발행된 《백두－한나》잡지들



편집물에 대한 소감을 교환한다.



애국의 한길에서

인기를 끈 《하루교실》수업

총련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에서 《하루교실》이라는 독특한 수업이 진행되였다.

목적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수 있도록 준비시키자는데 있었다.

체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름떨치고있는 동포들이 특별강사로 출연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으면서도 흥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분야에 대한 개괄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이어 실기숙련도 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리공학부의 교원, 학생들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여 호평을 받았다. 《하루교실》수업을 참관한 많은 학부형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금도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의 은혜로운 사랑과 1세동포들의 피타는 노력이 어려있는 민족교육의 화원을 더 훌륭하게 꾸려갈 결심을 가다듬으며 분발하고있다.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해외동포들은 자나깨나 어머니조국을 마음에 소중히 안고 살고있다. 일본에서 사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일본 사이다마현에서 국제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던 나날에 있은 일이다.

공화국의 체육선수단이 이 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은 사이다마지역 동포사회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동포들은 공화국선수단이 비행장에 도착할 때부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대규모의 환영모임을 마련해주고 축하의 노래춤바다를 펼쳐놓았다.

녀맹원들은 호텔식사가 입에 맞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김치를 비롯하여 성의껏 마련한 민족음식들을 매일 날라다주며 친어머니심정을 다하였다.

그에 비등하여 응원열기도 뜨거웠다.

동포들은 일본땅에서 보란듯이 경기를 진행하는 조국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힘이 솟는다고 하면서 대형공화국기와 출전한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프랑카드를 펼쳐들고 목청껏 응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응원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우리 공화국의 선수, 감독들은 일본땅이 아니라 마치 조국땅에서 경기하는듯 한 감을 느끼였다고 자기의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선수단이 총련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에 초청되여갔을 때였다.

조국의 선수단성원들이 차에서 내리니 운동장에 서있던 나어린 학생들은 저저마다 고사리같은 손을 내밀며 그들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동안 밖에서 기다렸는지 손들이 모두 차거웠다.

선수단성원들이 눈굽을 적시며 그들의 손을 따뜻이 감싸주자 학생들은《조국이 참 따뜻해요.》라고 뇌이면서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천진란만한 동심이 비낀 이 말속에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안고사는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려있었다.

언제인가 설맞이공연에서 이 역땅에 내릴 땐 차고차던 설눈도 조국에서 맞으니 따스하다고 노래부르던 동포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선수단성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고 한다.

30여년전에도 이 학교에 조국선수단 성원들이 찾아온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당시 나어린 학생이였던 총련 사이다마현 서부지부위원장 리룡태동포는 조국선수들과의 상봉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몸가까이 느끼게 해주고 혈육의 정을 나눌수 있게 하는 귀중한 계기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 기쁨을 잊지 않고 이역땅에서 민족의 넋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하고 헐뜯는 모략보도들이 하루도 그칠새없이 지면과 화면을 어지럽히고 재일동포들을 조국의 품에서 떼여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갈수록 악랄해지고있지만 이역에서 사는 아들딸들은 이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심장속에 안고 살고있는것이다.

넋과 뜻을 주고 정과 사랑을 주는 어머니조국을…

본사기자

옛 실학자의 《대두론》을 되새겨보며

여기에 세계전쟁사가 남긴 하나의 일화가 있다.

20세기 초엽 중국 동북지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에서 어느 한 나라의 장병들이 비타민C의 결핍으로 집단적인 괴혈병에 걸리였다. 하여 차지한 요새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시 그 요새안에는 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만일 병사들이 콩나물을 길러먹을줄 알았더라면 승패는 역전되였을지도 모른다. …

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콩에 모아지게 되였다.

콩을 연구분석한데 의하면 콩알에는 35~45%의 단백질과 16~24%의 기름이 들어있다. 콩기름은 반건성유(요드가가 100~130인 식물성기름)로서 불포화기름산함량이 높고 비타민A, B, D, E 등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먹는기름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콩깨묵, 콩잎, 콩줄기, 콩깍지에도 단백질과 당질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분들이 들어있어 집짐승먹이로 쓴다.

하다면 콩은 어떻게 산생되였는가.

조선봉건왕조시기 실학자 리익(1681년-1763년)의 《대두론》을 되새겨보면 콩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되여있다. 리익은 백성들이 그 잦았던 흉년과 기근, 외래침략에서 살아남을수 있은것은 우리 나라에서 콩이 났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민족과 나라가 유지된 저력으로서 《대두국력론》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세월을 거슬러보면 콩의 원산지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의 옛 령토이다.

우리 선조들은 6 000여년전부터 야생콩을 오래동안 가꾸면서 좋은 종자를 골라 수확량이 높은 재배콩으로 만들었다. 4 500여년전부터는 오늘날 심고있는 조선아종콩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콩이 그후 이웃나라들을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로 전파되였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콩농사를 짓기 시작한 선조들은 콩가공기술도 부단히 발전시켰다.

소나 말 등 집짐승의 겨울먹이로 콩을 삶아먹이군 한 선조들은 짐승들이 땅에 떨어져 곰팽이가 쓸게 된 콩을 더 맛있게 먹는데 주의를 돌리고 삶은 콩을 일부러 띄워서(발효시켜) 오늘날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래무지에서 자라나는 콩싹을 보고 콩나물을 길러 겨울용남새를 대신하였다. 예로부터 숙취(술에 푹 취하여 취기가 오래가는것)를 푸는데 특효가 있다고 전해진 콩나물은 100g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량의 3분의 1을 섭취할수 있다는것이 현대인들의 주장이다. 최근년간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술기운을 해소하는 성분이 콩나물뿌리에 87%, 콩나물줄기에 70%, 콩나물대가리에 58% 들어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밖에도 콩으로 콩밥, 콩국, 콩죽, 콩강정, 콩자반, 콩잎국, 두부 등 다양한 콩음식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태여난 속담도 많다. 《이도 나기 전에 콩밥부터 먹는다》, 《가마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 《번개불에 콩 닦아먹겠다》, 《콩밭에 서슬치겠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지 않는다》 …

오늘날 콩은 식생활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경공업제품들과 의약품의 원료로도 널리 쓰인다.

현재 중국, 도이췰란드, 미국, 영국, 이딸리아, 에스빠냐, 카나다, 일본을 비롯하여 수십여개 나라들에서 단백질함량이 90%이상이고 당질이 거의 없는 콩분리단백질을 생산하여 빵이나 꼴바싸를 비롯한 식료품의 기능성을 높이는 첨가제로 리용하고있다. 2~4살 난 어린이들에 대한 림상실험결과에 의하면 콩분리단백질은 소화률이 소젖단백질보다 4~7% 더 높으며 영양가가 소젖, 닭알, 고기단백질과 맞먹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선의 김치가 세계적인 인기음식으로 된것처럼 조선의 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간다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유모아

눈보고 병진단

옛날 어느 한 고장에 모르면서도 아는척 하는 의원이 있었다.

의원: 당신의 병은 매우 중한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한쪽 눈만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당신은 폐염에 걸려 열이 나고 관절염이 있지요? 좋은 약이 있으니 마음쓰지 마십시오.

환자: 이쪽 눈을 다시한번 보십시오. 방금 당신이 본 눈은 가짜눈입니다.

민족문화유산 고구려무덤벽화 (1)

고구려무덤벽화는 우리 나라의 회화유물가운데서 가장 오래고 내용과 형식이 우수하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는 천수백년의 기나긴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채, 고유하고 풍부한 주제와 다양한 생활세부, 묘사의 생동성, 힘있고 우아한 화법으로 하여 세나라시기 고구려회화의 발전면모를 실물로 보여주고있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은 화폭에 그려진 그 주제내용에 있어서 당시 고구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신앙 등 다양한 생활적내용들을 풍부하게 취급하고있으며 높은 묘사력으로 하여 당시 회화발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세나라시기의 무덤들에 벽화가 그려진것은 당시 사람들속에 지배하고있던 래세신앙과 무덤을 잘 꾸리고 장의하던 고구려사람들의 장의풍습에서 생겨난것이였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령혼은 살아서 생전의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는 관념론적인 령혼불멸설을 믿고있었다. 그런데로부터 그들은 이른바 《령혼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큰 규모의 무덤과 무덤간을 돌로 견고하게 만들고 그안에 기둥, 문, 들보 등을 실물과 같이 만들어 붙이거나 그림으로 그려 살림집처럼 꾸렸으며 벽면들에는 무덤에 묻힌 피장자가 생전에 누리던 생활장면들과 방위신들, 신앙적인 내용들을 그려놓았다.

지금까지 무덤벽화가 그려진 고구려무덤이 조사발굴된것은 110여기에 달하며 그것들은 주로 대동강류역의 평양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과 황해남도일대, 압록강류역의 중국 길림성 집안일대에 집중분포되여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은 주로 돌간흙무덤들에만 그려졌는데 무덤간을 작은 돌로 쌓았을 때에는 회미장을 하고 그렸고 잘 다듬은 큰 판돌로 쌓았을 때에는 돌겉면에 직접 그렸다. 그런데 바탕재료의 제한성으로부터 회벽에 그린 벽화는 선명하기는 하지만 습기를 받아 떨어진 부분이 많고 돌벽우에 직접 그린 벽화는 비물에 씻기워 좀 지워지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잘 남아있다.

고구려무덤벽화는 형식이 다양하며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다. 벽화들에는 인물초상, 인물풍속, 풍경, 동물, 정물, 꽃과 새 기타 장식적 및 상징적인 무늬 등이 종합적으로 그려져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은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벽화를 구성하였는가에 따라 인물풍속, 사신, 장식무늬로 벽화의 주제가 크게 갈라지며 주제 및 구성은 시기에 따라 일련의 변화과정을 보이고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가 실물로 등장하기 시작한것은 3세기경부터이며 5세기초까지는 주로 무덤주인공의 생전의 생활을 담은 풍속주제의 그림들이 무덤간안에서 주류를 이루고있었다. 당시의 무덤벽화들은 무덤간의 벽면과 천정의 두 부분에 나뉘여 그려졌는데 벽면에는 주인공의 생활장면을 그려 지상세계를 반영하였고 천정에는 해와 달, 별자리, 하늘을 나는 천인과 환상적인 새 등 신앙적그림들을 그려 하늘세계를 나타내였다. 그리하여 무덤간안을 하나의 축소된 세계처럼 형상한것이 일반적이였다.

5세기초부터 청룡(동), 백호(서), 주작(남), 현무(북)의 사신그림이 벽화의 묘사대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무덤벽화의 구성은 풍속주제의 그림들과 사신그림이 서로 뒤섞이는 과정을 거치였는데 특징적인것은 구성상 사신들이 처음에는 천정의 한구석을 차지하고 그려지다가 점차 벽면가운데로 내려와 풍속그림과 함께 그려지는 변화과정을 보이였다.

6세기이후부터 사신도가 기본벽면의 주제화로 되면서 인물풍속주제는 신앙적인 외피를 쓰고 천정고임부분에 그려졌으며 고구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일부 왕릉급무덤들에서 중앙을 나타내는 황룡이 더 첨부된 오신도형식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무덤벽화들에는 주제화와 함께 풍경화와 장식무늬를 섞어서 그리기도 하였으나 장식무늬만으로 화면을 구성한것도 있었다.

풍속위주의 벽화로부터 사신위주의 벽화에로의 주제적변천은 당시 고구려사회내부에서 계급적모순이 격화되면서 지배계급들이 죽은 다음의 《안녕》과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수호신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 신앙적관념의 복잡성과 변화가 반영된것이였다. 그러나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묘사된 형상의 주제와 소재들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자연의 사물현상과의 호상련관속에서 관찰하여 묘사하려는 당시 화가들의 새로운 지향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조휘남

남포시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7)

\- 룡강큰무덤 -





무덤의 앞칸 동쪽구조(왼쪽)와 천정구조(오른쪽)

남포시 룡강군에는 5세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인 룡강큰무덤이 있다.

룡강큰무덤은 무덤칸을 지상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덤벽은 넙적넙적한 막돌로 쌓고 천정은 판돌로 덮었다. 무덤의 벽면과 천정은 회로 미장하였다.

무덤칸은 무덤안길, 앞칸, 사이길, 사이길좌우, 2개의 감(벽장처럼 만든것), 안칸으로 이루어졌다.

무덤안길은 앞칸의 남쪽 중앙에 냈다. 앞칸은 동서 5.2m, 남북 1.71m의 장방형평면을 가졌고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3.7m이다. 이 칸의 천정은 각각 정방형이 되게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매 구간에 평행3각고임을 하였다.

무덤칸의 벽면과 천정에는 벽화가 가득히 그려져있었는데 많이 지워졌다. 앞칸과 안칸의 네 벽면에 기둥과 두공, 도리를 그려 방안처럼 꾸미였다.

앞칸의 남쪽벽에는 인물상과 성곽도가 남아있다. 성곽도에는 3개의 문다락이 있는데 가운데문다락은 2층의 크고 높은 골기와집이고 량쪽의 문다락은 그보다 낮고 작은 골기와집이다. 성곽의 모서리에는 각루를 세웠다. 문다락과 각루의 지붕마루에는 치미를 올렸다. 담장에도 골기와를 잇고 성안으로 포장한 길을 냈다. 안칸의 서쪽벽에는 봉황새가, 천정에는 구름무늬, 새, 련꽃무늬, 불꽃무늬 등이 가득히 그려져있다.

룡강큰무덤은 규모가 큰데다가 언덕우에 올려놓아 더 커보이게 하였다. 무덤칸도 정밀하게 만들고 성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벽화를 정교롭게 그려 무덤안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것들은 이 무덤의 주인이 높은 신분에 있었다는것을 알수있게 한다.

이 무덤은 5세기 고구려의 사회관계, 성곽, 건축술과 회화술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주는 력사유적이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리국성

관심을 끄는 온천문화



먼 옛날 어느 여름날 다리부러진 종달새가 진펄에 내렸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오르려고 며칠동안 애를 썼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종달새가 성한 다리로 하늘을 향해 높이 날자 그것이 하도 이상하여 마을사람들이 그곳에 가보았더니 땅속에서 더운물이 솟구쳐나오고있었습니다. 그후 마을사람들은 종달새의 다리를 고친 온천이라고 하여 그곳을 종달온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온 우리 조국에는 종달온천뿐아니라 학이 다리를 고쳤다고 하여 학래천이라고도 부르는 봉천온천, 소경이 눈을 뜨고 갔다고 하여 소경탕이라고 불리워온 양덕온천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온천자원이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일떠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류창환동포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소식을 듣고 자기가 첫 손님이 되여 조국인민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싶이 오늘 조국에서 일떠서고있는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세계선진수준일뿐만아니라 누구나 문명을 향유할수있는 인민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럼 이번호에는 우리 조국의 자랑을 더해주는 풍부한 온천자원과 그 약리적효과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온천이란 땅속에서 솟아나는 20℃이상의 더운 샘물입니다. 온천은 보통물과 구별되는 물리화학적성질과 생물학적 작용을 가지고있습니다.

온천은 대부분이 단순천(광물질함량이 1g/L이하이지만 치료작용이 있는 광천), 류황천, 염화염천이고 온도는 35~100℃가 절대다수이며 약수와 달리 온도의 계절적 변화는 거의 없고 년중 0.5℃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온천의 색은 무색이며 냄새는 류황천에서는 닭알냄새가 나고 염화염천에는 짠맛이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적응증에 따라 마시는 방법, 위세척방법, 직장안적용방법, 온몸욕적용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알려진 광천(약수, 온천) 백수십여개중에서 온천은 60여개입니다.

조국의 지명들가운데서 《온》자나 《천》자가 들어간것은 대체로 온천과 관련된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실례로 함경북도의 명천군, 황해남도의 삼천군, 배천군과 평안남도 양덕군 온정리,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등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온천의 치료효과와 약리적작용에 대하여 잘 알고 생활에 적극 리용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서천왕시기 왕의 동생들이 병들었다는 핑게를 대고 온탕에 가서 오락을 하며 즐기였다는 기록과 백제의 온조왕이 탕정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을 쌓고 백성들을 살게 하였다는 기록, 신라의 왕들이 동래온천에 가서 보양을 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삼국시기에 벌써 온천을 리용하여 병치료를 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온천분포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되여 각이한 온천들의 치료효능이 새롭게 밝혀졌고 온천을 리용한 치료방법들도 적극 탐구되였습니다.

온천을 리용한 치료방법을 서술한 어느 한 옛책에는 온탕에 들어가고 나올 때의 주의할 점과 치료시간과 회수, 치료기간의 음식조절법 등이 자세히 씌여져있습니다.

온천은 소화기질병, 관절염, 여러가지 원인의 신경통, 순환기 및 호흡기계통의 질병, 부인병, 피부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온천문화의 새 모습이 펼쳐진 양덕으로 어서 오십시오.

소나무숲속에서의 온천욕과 스키타기, 말타기의 결합과 같은 독특한 매력은 아마 그곳에서만 찾아보게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연옥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5)

평안북도의 특산－묘향취, 덤불조팝나무



묘향취나무



덤불조팝나무

묘향취는 묘향산에서 발견되여 주체25(1936)년에 신종으로 발표된 우리 나라 고유종의 하나이다. 그런데로부터 식물의 이름도 여기에 근거하여 지어졌다.

묘향산의 바위짬에서 자라는 묘향취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높이는 50㎝정도이다.

줄기잎은 어기여나는데 3각형의 창모양을 이루고있으며 웃부분은 뾰족하고 변두리는 날카로운 톱모양을 이루고있다.

꽃은 8월에 머리꽃차례를 이루고 피며 모두 관모양의 두성꽃이다. 꽃차례는 줄기끝에 1개 드물게는 2~3개 붙는다. 꽃갓은 보라색이다.

열매는 여윈 열매이고 타원형이며 9월에 여문다.

묘향취의 어린 식물체는 나물로 먹는다.

덤불조팝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발견되여 주체4(1915)년에 신종으로 발표된 나무이다. 평안북도 창성군의 깊은 산과 높은 산지대의 골짜기에서 자란다.

덤불조팝나무는 조팝나무과에 속하는 잎이 지는 넓은잎떨기나무로서 높이는 1~1.3m이다. 나무껍질은 희유스름하다. 잎은 홑잎이고 어기여나며 짧은 잎꼭지가 있다.

꽃은 5~6월에 짧은 가지끝에서 겹고른꽃차례를 이루고 많이 모여 배게 피며 두성꽃의 색은 흰색이다.

열매는 쪽꼬투리열매이고 암꽃술대는 밖으로 제껴져있으며 7월에 여물면 앞면의 속이음줄을 따라 저절로 터진다.

덤불조팝나무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씨앗으로 번식시키는데 땅에 대한 요구성은 높지 않으나 습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이밖에도 평안북도에는 누른종덩굴, 섬속소리나무, 신떡갈나무를 비롯하여 많은 특산식물들이 자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신명호



여름철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5)

- 송도원 -

송도원은 강원도 원산시 바다가에 있는 명승지이며 문화휴양지이다.

송도원은 마식령산줄기의 높고낮은 봉우리들과 여기에서 뻗어내린 산발들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조선동해의 맑고 푸른 물결과 바다기슭을 따라 펼쳐진 흰모래밭, 푸른 소나무숲과 붉게 핀 해당화 등이 잘 조화되여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바다가풍치를 이룬다.

력사기록을 보면 송도원은 19세기말~20세기초부터 해수욕장으로 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송도원이란 이름도 푸르싱싱 우거져있는 이곳 소나무숲과 관련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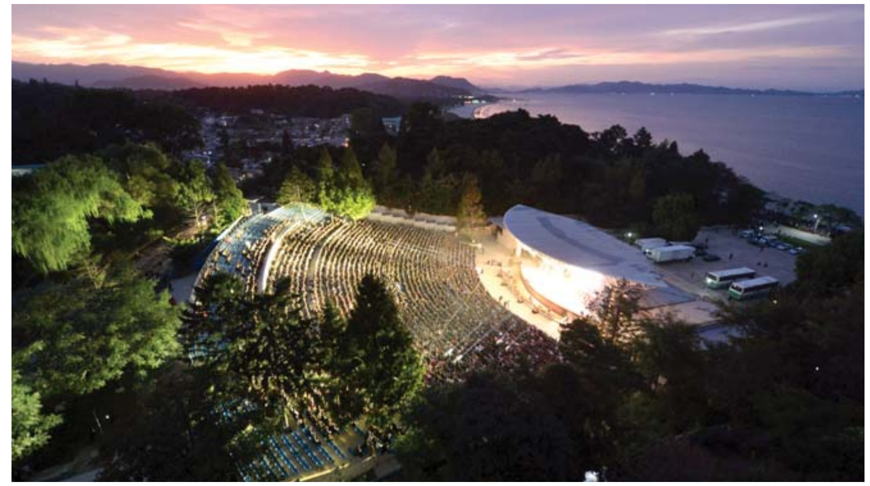
송도원앞바다는 만으로 되여있을뿐아니라 여러 반도와 섬들이 바깥바다의 세찬 물결을 막아주므로 마치도 커다란 호수와도 같이 보이며 바다물은 매우 잔잔하다.

또한 바다물은 맑고 깨끗하며 물온도가 알맞춤하여 해수욕장으로 좋은 곳이다.

산과 들, 강과 바다를 포괄하는 송도원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으로,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로, 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으로,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밭으로 자기의 요구와 취미에 맞게 휴식할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유원지이다.

이곳에는 휴양소들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문화휴양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어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기고있다.

본사기자 김슬기



인기공연으로 잠들줄 모르는 송도원청년야외극장

조선식공원의 일부





삼복철의 송도원해수욕장



모래불장난에 심취된 로씨야소년야영생들

야 화

콩밥먹은 힘

옛날 어느 바다가 마을에서 한 어부가 안해를 잃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부가 새 안해를 데려왔는데 그에게도 바우와 나이가 꼭 같은 칠성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우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나가면 며칠씩 걸려야 하였고 어떤 때에는 한달이나 있다가 돌아오군 하였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이붓어머니는 제 자식인 칠성이만 끔찍이 아끼면서 바우를 머슴군처럼 부려먹었고 칠성이에게는 흰쌀밥만 떠주고 바우에게는 맨조밥에 콩을 가득 섞어주군 하였습니다. 게다가 하루종일 허리 한번 펼새없이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우는 어린 마음에도 자기때문에 집안싸움이 일어날가봐 모든것을 꾹 참아왔지만 더는 참을수가 없어 이제는 아버지에게 모든것을 다 털어놓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여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바우는 바다가로 나갔습니다.

바우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붓어머니가 자기를 괄시한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있던 아버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너 씨름을 하면 칠성이를 이길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우는 이길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날 저녁밥을 먹고난 후에 아버지가 먼저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앉아 두 아이와 새 안해를 불렀습니다.

잠시후 아버지는 두 아이보고 씨름이나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바우와 칠성이는 멍석우에서 씨름을 했는데 워낙 힘이 세고 꾀가 있는 바우는 어렵지 않게 이길수 있었습니다.

《애, 한번 더 해봐라. 그렇게 맥없이 지다니…》

칠성이 어머니는 제 친아들이 진것이 가슴아파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시 붙었으나 역시 바우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바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말처럼 《허허… 우리 바우가 언제 저렇게 세졌나. 꼭 콩밥이라두 먹는놈 같군.》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칠성이 어머니가 약간 놀라면서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지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우. 그래서 뒤집 황소두 콩을 먹이는게 아니요. 그 소가 얼마나 힘이 셉디까?》

바우 아버지가 하는 대답을 칠성이 어머니는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른아침에 아버지는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먼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붓어머니는 바우에게는 흰쌀밥을 떠주고 칠성이에게는 콩밥을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콩밥이 싫다고 밥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엄하게 꾸짖으며 콩밥만 먹게 하였습니다.

보름후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우는 매우 기쁜 얼굴로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웬일인지 요즈음에는 새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봐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됐다. 오늘 씨름에서는 네가 일부러 져주어라.》

이날 저녁에도 네 식구는 마당에 나와 멍석을 펴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두 아이에게 씨름을 시켰습니다. 칠성이도 군말을 하지 않고 선뜻 일어섰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약속을 한지라 바우는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칠성이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이붓어머니도 너무 좋아 입이 함지만 해졌습니다.

《콩밥을 먹으면 힘이 세진다더니 정말이였구려. 보름동안 내내 칠성이에게 콩밥을 먹였더니 바우보다 세졌구려.》

그러자 바우 아버지는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꾸며낸 이야기였소. 제 자식이 귀여우면 남의 자식도 귀여워해야 할게 아니요. 씨름판을 두번이나 벌려놓은것도 당신이 칠성이만 고와하구 바우는 고와하지 않는것 갈기에 내가 꾸며낸 놀음이였소. 두 애가 다 불쌍한 아이가 아니요? 우리 서로 차별없이 키웁시다.》

이붓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 그만에야 고개를 푹 숙이고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칠성이 어머니는 바우도 친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였다고 합니다.

* * *

사 화

연안성에서의 맹세 (3)

석주의 팔에서는 시뻘건 피가 랑자하게 흘렀다. 그래도 그의 손은 여전히 말고삐를 쥐고있었다.

두리의 군졸들은 끔찍한 이 광경에 놀라 아연실색하며 석주의 신변을 념려하였다. 늙은 관노 하나가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 그의 팔을 싸매였다.

석주는 이에 아랑곳없이 말우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도원수를 정면으로 쏘아보며 질책하듯이 말하였다.

《못 갑니다, 못 가. 하늘이 굽어보거늘 이 군사들과 장비를 가지고 어찌 한번 부딪쳐보지도 않고…》

《이놈, 그래도 말고삐를 놓고 썩 물러서지 못할가?!》

석주의 말허리를 자르며 울리는 물어뜯는것 같은 도원수의 불호령이였다.

도원수의 호통에 맞서는 석주의 애처로우면서도 도도한 호소는 더욱 절절하였다.

《대감님, 이 몸이 미천한 몸일망정 왜적과 싸우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소이다. 이 숱한 군정들이 지금이라도 떨쳐나서 싸운다면 어찌 승산이 없으리까?》

애통하게 부르짖는 석주의 시뻘건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뭉클뭉클 쏟아져내리였다.

도원수는 그의 면상을 향하여 다시 칼을 추켜들었다. 순간 곁의 젊은 군졸 하나가 석주의 몸을 덥석 잡아끌어채였다. 그찰나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내리쳤다.

다음순간 다른 군졸이 도원수의 앞을 막아나섰다.

악에 받친 도원수는 다시 칼등으로 가차없이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두리의 군사들은 쓰러진 두 사람을 끌어안고 엉겁결에 뒤로 물러섰다. 그틈을 타서 도원수는 말갈기를 거머잡으며 황황히 성안쪽으로 달아빼였다. 그뒤를 동행하는 수원들이 따랐다.

격분한 군사들은 그들의 뒤를 장달음으로 쫓아가며 돌팔매질을 하였으나 허사였다.

여기에 나오는 한석주는 원래 황해도태생으로서 본성명은 석천개이다. 그는 이해 스물두살 나는 로총각이다.

석주의 아버지는 군역으로 끌려나갔다가 가혹한 학대를 반대하여 군문에서 다른 군졸들을 결진하여 란을 일으킨 《죄》로 참(목을 베는 형)을 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천개는 화가 미치기 전에 한석주라고 변성명하고 중이 되였다. 열여섯살부터 중의 몸으로 팔도강산을 순행하던 그가 연안땅에 들어선 시기는 경인년(1590년)이였다. 이해 여름에 충청도 옥천땅에서 연안부사 신각을 찾아가는 젊은 나그네와 우연히 동행하게 된것이 계기로 되여 석주는 신각을 알게 되였다. 충청도 옥천의 우국남아 조헌이 왜적의 침입에 대처하여 연안성을 고쳐쌓을것을 아들을 시켜 부사에게 권해왔던것이다. 신각은 연안성을 수축할것을 결심하고 공사에 달라붙었으나 원래 방대한 일이라 공사는 처음부터 뜻대로 되지 않았을뿐더러 곡절이 많았다.

이때 신각은 이 공사에 나온 석주의 깊은 궁냥과 지식에 놀랐다. 신각은 비록 그가 천민일망정 그의 사람됨을 귀히 여겨 이 공사의 앞장에 내세웠다. 마침내 신당수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 전시에도 음료수걱정을 하지 않고 요새화된 성에 의거하여 싸울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불과 한해 반만에 마칠수 있었다.

성수축공사가 끝나는 날 연안부사 신각은 석주와 이 고을 힘장수로 알려진 리수돌을 불러놓고 장차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함께 몸바쳐 싸우자는것을 결의하며 술잔을 나누었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따뜻이 대해주는 신각의 각별한 사랑에 두 젊은이는 감복하였다. 그들은 곧 병서와 무예를 익혔는데 그후 수돌은 부사의 천거에 의하여 병조산하의 군문으로 뽑혀들어가고 석주는 이번에 왜적이 침입하자 연안성의 그 맹세를 가슴에 새기고 황해도 연안에서 신각을 찾아 한성으로 달려왔던것이다.

하늘을 뒤덮었던 연기와 화염은 전선과 군량, 병기와 화포들을 모조리 들여마시고서야 요마와 같이 사그라졌다.

강가에는 병기의 잔해가 앙상하게 남아있고 강변으로는 숯이 되다만 전선의 나무쪼박이 시꺼멓게 줄지어 떠내려가고있었다.

* * *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력사적인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어느덧 한세기를 넘어섰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겨레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실시하였던 악랄한 폭압정치에 항거하여 분연히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에 떨쳐나섰던 시위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터쳤던 격노한 함성을 쟁쟁히 기억하고있으며 당시 국내는 물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이 반일애국항쟁에 합세하여 투쟁하던 동포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더불어 빼앗긴 삼천리강토와 민족의 자주권,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조선인민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반인륜적죄악도 영원히 잊지 않고있다.

당시 시위진압에 나선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총과 칼로 살륙하는것도 아깝다고 뇌까리며 사람들의 팔다리를 네마리의 소나 말에 매고 채찍으로 내몰아 사지를 찢어죽이거나 작두로 목과 팔다리를 잘라놓고 하나하나 나무에 매달아놓는것과 같은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검거한 봉기자들을 앉혀놓고 쇠몽둥이와 갈구리로 뒤통수를 때려 머리뼈를 바스러뜨렸으며 단도로 온몸을 마구 찔러 피범벅을 만들었는가 하면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여 소년의 입을 칼로 찢어놓아 죽이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때 일제의 이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10여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가 3.1인민봉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야수적인 집단학살만행은 말그대로 전체 조선민족을 완전히 도륙내기 위한 전대미문의 대살륙전이였다. 그뿐이 아니다.

4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 일제는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의 청춘과 생명,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이렇듯 이루 헤아릴수 없는 반인륜적대죄를 저지른 일본이지만 패망한지 75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죄악의 과거사를 미화분식하다 못해 전면부정하는 파렴치하고 철면피한짓을 감행하고있다.

일본정객들은 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참배놀음을 벌리며 군국주의망령을 부르고있으며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돈을 바라고 한 자발적인 행위》라는 망발을 해대고있다. 방위백서와 력사교과서들에 조선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명기하였는가 하면 《일본해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는 궤변으로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신성불가침의 조선의 땅과 바다를 강탈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뿐만아니라 저들의 재침야망실현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조선위협론》을 계속 여론화하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과 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와 같이 3.1인민봉기가 일어난지 한세기가 넘어서고 세대가 여러번이나 바뀌였지만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일본의 과거죄악은 결코 청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죄악으로 이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기에 지금 죄악의 력사를 성근히 반성할 대신 죄악에 죄악을 덧쌓으며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에 대한 조선민족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천추만대를 두고서라도 일본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여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려는것은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일본의 만고대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조되는 적페청산의 함성

남조선에서 날이 갈수록 보수적페를 청산하기 위한 각계의 대중적투쟁기운이 고조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토론회, 기자회견, 론평발표, 집회 등을 진행하여 적페청산을 반드시 이루어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기념대회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자한당》과 보수언론, 검찰을 비롯한 적페세력이 초불항쟁의 성과를 뒤집어엎으려고 발광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하면 보수적페세력이 다시 득세하고 력사가 후퇴하는 비극이 벌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민족화해,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수 있다고 하면서 적페청산을 끝까지 진행할 자기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서울과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전례없이 큰 규모의 집회들이 진행되여 제2의 초불항쟁으로 적페를 청산하자는 함성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사법적페청산 범국민시민련대의 주최로 서울시에서 진행된 초불집회에서 투쟁참가자들은 《검찰은 문 닫아라》, 《검찰이 범인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선전물들을 들고 부패한 권력에 붙어 리속을 챙기는 검찰을 규탄하였다.

보수적페청산투쟁의 불길은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도 타올랐다.

집회참가자들은 《공수처를 설치하라!》,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국회폭력 자한당 엄정수사!》 등의 구호를 웨치며 사법적페청산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외세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서도 적페청산, 토착왜구를 청산해야 한다고, 단결할 때 힘이 커진다고 하면서 각계가 하나로 뭉쳐 적페청산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진보련대와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초불항쟁의 정신으로 보수적페를 철저히 청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연 1 70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초불항쟁은 보수세력이 남겨놓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적페를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민중이 주인된 참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였다고 밝혔다.

대학생, 청년학생들이 《자한당》해체, 검찰개혁투쟁에 앞장서고있다.

대학생진보련합이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적페세력의 재집권음모실현에 앞장서고있는 검찰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단결된 초불의 힘으로 재집권을 위해 발악하고있는 검찰과 적페세력들을 청산하자고 호소하였다.

국민주권련대는 각계민중이 보수적페세력들의 재집권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날마다 고조되고있는 적페청산투쟁은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뒤전에 놓는 사회의 악인 적페들은 이 땅에 발붙일 곳도 숨쉴 곳도 없다는것이다.

적페세력청산은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적페세력청산이 실현될 때까지 민심의 분노의 초불이 더 세차게 타번지게 할것이다.

남조선도처에서 전개되는 보수적페청산투쟁은 력사의 퇴물들인 적페세력을 전률케 하고 있다.

본사기자

요람에 돌을 던지는 망동

그 어느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간주되여 온갖 배려와 혜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과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아동차별과 학대가 례상사로 되고있는 일본에서 때늦게나마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되고 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무상화가 실시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유독 조선아이들의 요람에 돌을 던지는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횡포무도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당국은 내외의 규탄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끝끝내 제외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리유는 조선학교 유치반들에서 일본말이 아니라 모국어인 《가갸거겨》를 배워준다는것뿐이다.

초보적으로 놓고보아도 재일조선인들은 일본국민들과 똑같이 소비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다. 그러한 재일조선인들의 자녀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일본법과 국제법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며 인도주의적견지에서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민족차별행위로 되지 않을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롱락물이 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게 한 일본반동들의 행태는 치졸하기 그지없고 인간의 리성마저 잃은자들의 분별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망동은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차별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유치원이 대상에서 빠지고 무상화정책에서 차별받는 처지에 이르자 일본전국의 수많은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 조선유치원에 애정을 가진 일본국민들까지 도꾜의 중심거리에 달려나와 대규모집회를 열고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사실 조선어린이들은 지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 징병 등으로 강제로 련행되여 일본땅으로 끌려가 갖은 고역을 치르어온 수백만 조선청장년들의 후손들이다.

자기 나라의 말과 글,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것은 조선학생들의 응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일본땅에 조선학교가 생겨난 첫날부터 재일조선인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학교의 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탄압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재일동포들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은 항시 엄중한 위협을 당해왔으며 오늘은 철없는 어린이들까지 무제한한 위협의 대상으로 되였다.

사회적보호의 대상으로 되여야 할 어린이들마저 민족적차별의 주요과녁으로 삼은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좀스럽고 악착한 나라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긴 신성시되여야 할 법전우에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지독스레 얹어놓고 《법치》를 줄창 고아대는 아베정권하에서 무슨 제대로 된 법이 나오고 온전한 시행이 따르겠는가.

허울좋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시행을 통하여 일본당국은 스스로가 국제법적요구도 안중에 없는 무지한 깡패집단,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범죄국가임을 더 분명히 밝힌셈이다.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들을 배제한 흉악한 정치적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재일동포들 특히 젊은 학부모들에게 과중한 재정적부담이 가해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득불 어린 자식들을 일본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자는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자체를 없애버리자는데 있다.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문제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보나 또 국제법상의 요구로 보나 일본당국이 회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으로 된다.

일본이 제 이마에 큼직하게 찍혀진 전범국이라는 치욕의 락인을 씻자면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는것과 함께 국제법을 존중하는 옳바른 자세부터 가져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려해

송현리석불상



최근 조국의 여러곳에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재능을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있다.

그중에는 지난 1월 남포시 온천군 송현리에서 발굴된 석불상도 있다.

백색화강석을 가공하여 만든 불상은 그 세공이 섬세하고 정교하다.

석불상은 높이 235㎝, 너비 84~91㎝, 두께 22~26㎝인 몸체부분과 5각형에 가까운 통돌을 다듬은 앞면길이 140㎝, 측면너비 113㎝, 두께 23~24㎝인 받침대부분으로 되여있다.

부처가 련꽃을 새긴 받침대우에 올라서서 두손으로 약단지를 감싸쥐고있는 불상의 모습은 약사여래상을 형상하고있다.

받침대의 앞면에는 련꽃잎들이, 웃면에는 장식무늬가 새겨져있다.

석불상에 대한 조사발굴시 전나무잎무늬가 새겨진 기와쪼각을 비롯한 고려시기의 기와쪼각들과 쇠활촉, 금속화페 등 여러가지 유물이 발견되였다.

석불상의 비례구조와 옷차림새, 받침대형상 등 여러가지 징표와 발굴과정에 나온 기와쪼각들의 사용시기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학자들은 불상의 제작 및 건립년대가 고려 초기의 10세기초라는것을 해명하였다.

석불상은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귀중한 유산이며 고려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발굴된 유물들의 일부







해칠보의 아침　　본사기자 김성철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 기암절벽에 부딪쳐 물보라 날리는 해칠보의 해안절경은 떠오르는 아침해와 더불어 장관을 이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208030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